

# 李基文先生へのインタビュー

福井 玲・南 潤 珍

## はしがき

李基文先生（1930-2020）は韓国語研究で世界的に著名な学者である。東京大学大学院人文社会系研究科では、現在の韓国朝鮮文化専攻の前身にあたる朝鮮文化部門において1993年10月～翌年9月まで初代の客員教授を担当された。

李基文先生の業績はあらためて紹介するまでもない。著書『国語史概説』は版を重ね、今でも韓国語の歴史的研究の最も重要な基本図書である。同書をもとにして、2011年にはアメリカの著名な韓国語研究者 S. Robert Ramsey 先生と共著で *A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という著書が出版された。これは英語で書かれた韓国語の歴史的研究に関するスタンダードとして今後も永く基本図書として参照されることになろう。先生の研究は韓国語の歴史的研究、なにかんずく音韻史研究がその中心を占めるが、それ以外にも語彙史研究、千字文、訓蒙字会などの資料研究、開化期の国文研究などでも多くの業績を残された。

本稿の二人の筆者のうち、福井は1984年にソウル大学校人文大学国語国文学科の大学院に留学し、李基文先生に指導教授になっていただいた。南潤珍は同じ国語国文学科で学部と大学院を修了しており、2人とも授業などを通して李基文先生の薫陶を受けた。

本稿は、福井が2000年に行った李基文先生へのインタビューがもとになっている。これは当時大修館書店より刊行されていた『月刊言語』という雑誌の特集号として2001年に刊行された『言語の20世紀101人』という別冊特集号のために行ったインタビューである。この特集号は20世紀の世界の言語学者101人を選んで、その業績や伝記を紹介するもので、韓国の言語学者としては李基文先生が選ばれ、出版社よりその解説記事が福井に依頼されたものである。インタビューは2000年8月10日、先生が停年退職後に書庫兼書斎として使われていたソウル良才洞のオフィステルを福井が訪問して行われた。ただし、この雑誌記事は一人当たり2ページと極めて紙幅が限られており、その1時間余りにおよぶインタビューの内容のごく一部分しか載せ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そこで、本稿では録音されたインタビューの全体を文字化して、日本語翻訳文とともに紹介するものである。文字化は南潤珍が行い、解説執筆と日本語訳は福井が行った。

ところで、上記の雑誌記事は、業績を中心に執筆するだけならわざわざインタビューをするまでもないところ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あえてソウルまで出向いてインタビューを行った理由は、それまでいろいろな機会に李基文先生から数々の興味深い過去のエピソードを断片的に伺っていたにも関わらず、いざ記事にしようとするや情報の正確さに自信が持てなかったからである。その過去のエピソードの多くは1945年以前のことであり、その中には先生の退職記念と同時に刊行された『帰郷』というエッセイ集で扱われている話題も含まれる。先生は平安道のご出身で、戦後はいわゆる「失郷民」になってしまわれたわけであるが、そのあたりも含めて、こうした話題の詳細な背景を知りたいと思ったわけである。

以下では、インタビューの内容について、福井の質問と李基文先生のお答えの全体を掲載するが、便宜上、話の内容に従って節に分け、それぞれにタイトルを付けるとともに、各節の終

わりに注釈を付けた。また、文章化する際に、李基文先生の発言をできるだけ忠実に再現することを目指したが、文章のわかり易さのために、言い淀みや繰り返しなどは若干修正した部分があることもお断りしておく。

最後に、このインタビューで扱われた話題を表すタイトルとキーワードを示すと次のとおりになる。

- 1 五山学校 (五山学校, 平安北道定州郡, 李昇薫, ワグナー教授, 辛鎬烈, 書堂)
- 2 五山小学校の先生 (金彝烈, 皇国臣民の誓詞, 咸錫憲)
- 3 高句麗人の子孫と咸錫憲先生 (咸錫憲, 内村鑑三, 無教会主義)
- 4 中国との関係 (金東仁, 甘薯)
- 5 平壤の兵器廠での労働と解放 (平壤, 中学, 旋盤)
- 6 父と兄について (李賛甲, 野球, 農村運動, プルム学園, 九孔炭, 洪淳明, 李基白, 韓国史新論, 方鍾鉉)
- 7 解放と越南 (解放, ロシア語, 地主, 越南, 文鮮明)
- 8 朝鮮戦争 (手術, 人民軍, 青年団員, 釜山, 戦時連合大学)
- 9 今後の研究計画について (ラムジー教授, 健康, 光陵, 祖父, 李昇薫, 3・1 独立運動, 語源辞典)
- 10 河野六郎先生の瀆に関する所説について (河野六郎, 瀆, 高句麗, 三国史記)

## 1 五山学校

福井：선생님, 그 “귀향”이라는 책을 보니까 오산 학교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 이게 어떤 학교였는지……

李基文：평안북도, 정주군, 갈산면이라는 면이 있어요. 거기를 옛날부터 오산이라고, 산 다섯 개가 이렇게 빙 둘러 있다고 해서 오산이라고 하는 속칭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일제시대의 무슨 행정적인 이름은 아니고, 그저 그 속칭으로 오산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거기에 내 고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의 동생이, 남강 이승훈이라고, 아마 그 책에 나올 게야, 이름이. 호가 남강이예요. 그래서, 그 분이 인제 그 학교를, ……

福井：이승훈이요?

李基文：이, 승, 훈. 이승훈이라고 하는 분이 학교를 1900……, 알송달송하네, 1907년에 아마 세웠을 거야, 1907년일 거예요. 지난번에 90주년 기념회, 그 오산학교가 지금 서울에도 있어요.

福井：예, 그런 얘기 들어 봤는데.

李基文：남쪽에 와서 재건을 해서 서울에 지금 오산학교가 있어요. 오산중학교가.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새로운 교육에 대한 그런 그 열망이 많이 있던 때라 각 지방에 그런 사립학교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뭐 대부분 그냥 조금 몇 년 있다가 없어지고 이제 이런 일이 많았는데, 오산학교는 하역튼 거기 시골이었지만은 평

福井：先生, 『帰郷』という本に「五山学校」という名前がよく出てきますが, これはどういう学校だったのでしょうか。

李基文：平安北道, 定州郡, 葛山面という面がありました。そこを昔から「五山」と, 山が5つぐるりととりまいているからといって五山という俗称があって, それは日帝時代の行政的な名前ではなくて, ただ俗称として五山という地名がありました。そこに私の高祖父の弟で南岡李昇薫がいて—多分その本に出てくるはず—号が南岡で, その方がその学校を, ……

福井：李昇薫ですか?

李基文：李, 昇, 薫. 李昇薫という方が学校を, 19……, 記憶が曖昧だね, 多分1907年に建てたはず。この前, 90周年記念行事があったけど, その五山学校は今ソウルにあります。

福井：はい, その話は聞きました。

李基文：南に来て再建して今はソウルに五山学校があります。五山中学校が。というのは, その時は韓国に新しい教育に対する熱望が大きかった時代で, 各地にそのような私立学校がたくさんできました。しかし, 大部分は何年かするとなくなってしまうことも多かったけれど, 五山学校は, 田舎だったけれども, 平安道はその当

안도가 비교적 그때 소위 개화가 말이죠, 상당히 개화에 대한 열의가 높았어요. 왜냐하면 조선왕조 때에 쪽 평안도는, 벼슬을 못했거든요, 관리가 못됐어, 평안도 출신은. 그렇지만은 과거 시험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통계가, 정주군에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아요. 이것은 하버드 대학의 와그나 교수가 우리나라의 모든 과거 합격자 자료라든가 이런 걸 컴퓨터에 넣었는데 하여튼 정주군의 합격자가 제일 많아요. 그만큼 교육에 대한 열의가 옛날부터 많았어요.

그리고 그 오산학교가 있던 그 자리도 바로 옛날에 그런 서당 자리예요. 서당이 있어서 거기서 교육을 시켰고. 그래, 내가 그때—이거, 자꾸 얘기가 길어지네—신호열 씨라고 우리 서울대학에서 한문 가르치던 노인 선생님이 계셨어요. 한문 아주 잘하는 분인데, 그분한테 한번, 그분을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해. 정주군은 아주 옛날 서당 교육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정주군의 서당 선생을 서울의 유명한 집에서 특별히 초청해서, 개인 교수를 시키고, 해서 자기 아들들 과거 시험 합격시켰다고 말이지. 선생이 그렇게 우수했다고. 요새로 말하면 서울 시내 유명한 그 학원 선생이나 비슷하게 말이죠, 일본에도 아마 그런 거 있잖아요, 학원의 선생들. 그렇게 해서 아주 유명했다는 거야. 하여튼 그래, 그, 벼슬도 못하면서 과거 시험은 자꾸 봐서 합격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도는 상당히 높았죠. 그러다가 이제 개화기가 돼서 새로운 문화가 중국에서 만주를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야. 그리고 또 기독교가, 19세기 말부터 기독교가 또—주로 신교예요, 구교가 아니고—신교가 만주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정주 고 바로 위에 선천이라고 있는데 그 일대가, 우리나라 신교, 기독교의 일종 아주 근거지처럼 돼 있었어요, 거기.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자연히 일본에 유학들도 많이 가고 뭐 이렇게 해서.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많았으니까. 그런데 오산학교가 거기 썼는데 역시 기독교, 우리 그 고조할아버지의 동생이, 말하자면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어요. 일종의 기독교 학교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선교사가 직접 세운 학교는 아니고. 민족정신을 주로 하고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인제 그 학교를 했어요. 그런 텐데.

福井： 그러면 그 당시로서는 아주 선진적인 교육을……

李基文：어, 그렇죠, 대단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유명한—한 20년대까지도, 20년대 말, 내가 1930년에 태어났는데, 그 전까지도—우리

時いわゆる開化への熱意が高かったのです。なぜかという言うと、朝鮮王朝時代は平安道ではずっと官職につけませんでした。平安道出身は官吏になれなかった。それでも科擧の試験は受けることができました。そして、驚くべき統計があって、定州郡で科擧に合格した人が韓国で一番多かったのです。これはハーバード大学のワグナー教授が韓国の科擧合格者の資料などをすべてコンピューターに入力して、とにかく定州郡の合格者が一番多いんです。それだけ教育に対する熱意が昔から高かったのです。

そして、その五山学校があった場所まさに昔の書堂の場所です。書堂があってそこで教育をして。そして、その当時、話が長くなってしまふけれど、辛鎭烈先生という、ソウル大で漢文を教えていた年配の先生がいらっしゃいました。漢文がととてもよくできる先生で、一度その先生にお会いしたとき、その話をなさるんです。定州郡は昔の書堂教育で有名だったので、定州郡の書堂の先生をソウルの有名な家々では特別に招いて個人教授をさせ、そうして自分の息子を科擧の試験に合格させたいということを。先生がそれほど優秀だったと。最近で言えば、ソウル市内の有名な予備校の先生みたいなもので、日本にもいますよね、予備校の先生たち。そういうことで大変有名だったということ。とにかく、官職にもつけないのに、科擧の試験はどんどん受けて合格するという。だから民度が相当に高かったのです。そのうち、開化期になり、新しい文化が中国から満州を通して入ってきた。それからまたキリスト教が、19世紀末からキリスト教がまた—主に新教が、旧教ではなくて新教が—満州を通して入ってきました。それで、その定州のすぐ上に宣川というところがあって、その一帯が言わばキリスト教の新教の一種の根拠地ようになっていました。それでその人々は自然と日本に留学に行く人も多かったです。教育に対する熱意が大きかったのです。ところで、五山学校がそこに設立されたが、やはりキリスト教、私の高祖父の弟が、いわばキリスト教的精神をもって学校を設立しました。つまり、一種のキリスト教学校です。だからと言って、宣教師が直接作った学校ではなくて、民族精神を主としてキリスト教を基盤としてその学校を作りました。そういう場所だったのです。

福井：それなら、その当時としてはとても先進的な教育を……

李基文：そうです。とても。だからわが国で有名な—20年代まで、20年代末、私が1930年に生まれたのですが、その前まで—韓国で有名な独立

나라에서 유명한 하여튼 독립지사, 학자들이 많이 선생으로 왔어요. 그리고 거기들, 오산을 거쳐서 만주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 또 중국이나 만주에 있다가, 와서 오산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가 말하자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하나의 연락처, 근거지처럼 이렇게 꽤 가지고 사람들 많이 오고 가고. 30년대 쯤 되면은 이제 일본의 통치가 점점 강해지고 압박이 오니까, 내가 어렸을 때 보면은, 많이 이제 그런 게 없어졌죠. 그렇지만 그때도 가끔 보면 우리 집에 뭐, 이상한 손님들이 왔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사람들 오고, 와서 잠들 자고 가고, 뭐, 이런 일이 많았어요.

註)

귀향: 『帰郷』 李基文先生の停年退職記念に作られた随筆集。

남강 이승훈: 南岡 李昇薰 (1864-1930)。

와그너 교수: Edward Willet Wagner (1924-2001)。ハーバード大学の韓国史学者。

## 2 五山小学校の先生

福井: 그리고 역시 선생님 글에서 읽어 본 일인데 소학교 4학년 때였나요? 조선어가 없어졌다고...

李基文: 응, 없어졌다, 그 이야기 조금 썼죠.

福井: 생생하게 기억하세요?

李基文: 탄 학교에 비하면은 오산소학교는 말하자면 조선어 시간을 한 2,3년 더 한 셈이에요. 고 때 아마 완전히 끊지는 않고, 어떻게 좀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산소학교는 아마 탄 데서들은 벌써 그 전에 가르치지 않았는데, 내 나이 같은 사람들한테 물어 보아도 자기는, 어떤 사람은, 아이구 소학교에 입학해서 나는 조선어는 하나도 배운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좌우간, 일주일에 한 두 시간이지만, 조선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福井: 다른 수업시간은 전부 다 일본말로.....

李基文: 일본말로 다 했죠. 예, 그럼요. 근데 1학년 때 선생님은, 거기 내가 그 어떤 글에 썼잖아요? 교장 선생님인데 김이열 선생이라고. 매일 아침, 가서 그때는 황국신민의 서사라는 거를 '고고쿠신민노세이시'라는 걸 매일 아침에 읽었거든요. 그걸 전교생이, 교장이 먼저 읽으면 전교생이 따라서 또 읽고 그랬어요. 그런 거 모르지? 하하하하.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매일 여기서 그걸 꺼내서, 조그만 종이니까, 꺼내 가지고, 1,2,3밖에 없어요. 그리고 1 하면 우리들은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다. 충성을 다 해서 뭐, 하겠다, 2, 뭐, 뭐, 3. 고런 식으로 짝막한 세 구절인데 그걸 매일 아침 여기서 꺼내서 읽었던 말이야, 이 양반이. 따로 외질 않고, 따로

志士, 学者たちがたくさん先生としてやってきました。そしてそこを, 五山を経て満州や中国に行ったり, さらに中国や満州に行ってきたから五山学校で教えたり, こんな風に, そこが我が国の独立運動の1つの連絡場所, 根拠地のようになっていて, 人々が行き来した。30年代ぐらいになると日本の統治が強くなって圧迫されるようになり, 私の幼いときには, もうそういうことはな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それでも, その時期でも, 家に, 何とというか, おかしな客人が来たというし, いろんな人が来て, 泊って行ったりするようなことが多かったのです。

福井:それからこれも先生の文章で読んだのですが, 小学校4年生のときでしたか, 朝鮮語の授業がなくなったと...

李基文: ええ, なくなった。その話は少し書いたね。

福井: 生々しく覚えていらっしゃるんですか。

李基文: 他の学校に比べれば五山小学校は朝鮮語の時間を2, 3年長くやったのです。当時, おそらく, 完全に絶やすことなく, どうにかして(維持して)いたみたいです。それで五山小学校は, 多分, 他の所ではそれより前に教えなくなっていて, 私と同年代の人に聞いてみても, ある人たちは, 自分は小学校に入って朝鮮語を全然習ったことがない, そう言う人もいます。地方によって少しずつ違いがあったみたいです。でも私はともかく1週間に1, 2時間は朝鮮語というのがありました, そのとき。

福井: 他の授業はすべて日本語で.....

李基文: 日本語でやりました。もちろん。1年のときの先生が, どこかに書いたことがあるのだけど, 金彛烈先生という校長先生の話です。毎朝, 学校に行くと当時は皇国臣民の誓詞というのを毎朝読みました。それを全校生徒が, 校長が先に読んで生徒がそのあとについて読んだりしていました。そんなことは知らないだろう? (笑) そうやっていたのだけど, その校長先生は毎日それを懐から取り出して, 小さな紙切れなので取り出して, (内容は) 1, 2, 3しかありません。そして, 1と言うのは, 私たちは大日本帝国の臣民で, 忠誠を尽くして何をする, 2. 何々, 3. 何々。そんな短い3つの句なのに, それを毎朝懐から取り出して読んだんで

했다는 걸 표시를 안하고 요렇게 보고서 읽어. 그게 이제 학생들에게 읽기 싫은 걸 억지로 하니 까 저렇게 한다. 그 교장이 우리 일학년을 가르쳤는데 그 양반은 옛날 서당선생이었어. 그야말로 서당 선생님인데 이제, 신교육을—오산학교 1회 졸업생이야—신교육을 다시 받고 해서 이제 오산소학교의 선생을 하셨는데, 언제나 1학년을 가르쳤거든. 그러니까 1학년에 들어가면,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는 하여튼, 붓하고 먹하고 이걸 갈아서 말이죠, 붓글씨를 쓰기, 썼어요. 1학년 때 그걸 시켰어요. 이 양반이. 말하자면 서당 학생식으로 처음에 교육을 시키고, 천자문 중에서 이제 제일 쉬운 글자들을 가지고 쓰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양반은 일본말을 그냥 저, 할 줄은 알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하여튼 일본말은 단어 정도로 이렇게 하고, 하면서 한국말을 많이 섞어서 했지. 그런데 2학년쯤부터는 그 시간 중에는 하여튼, 대체로 선생들이 일본말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또 만나면 한국말로 하고. 그게 아주, 오산학교의 특징이었죠. 다른 데서는 아마 뒤, 일본 선생이 많이 있었고 해서……

福井：오산학교에도 일본선생님이…

李基文：많이 있었어요. 다른 데는 많이 있었어요.

### 3 高句麗人の子孫と咸錫憲先生

福井：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옛날에 역사 소설을 읽으면서 자기가 고구려인의 후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李基文：글쎄 그건 뭐 지금은 그런 생각 없지마는, 하여튼 그 때 평안도 사람들은 다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특히 내가 고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오산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친 함석헌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분 이름 몰라요? 함, 석, 헌. 기독교 신자로 동경 저, 교육대학, 옛날에 고등사범학교지 나중에—저, 왜, 차 한잔 할까요?—고노 로쿠로 선생 있던 그 교육대학? 그게 아마 그 학교지? 일제 시대. 동경고등사범학교. 동경고등사범학교하고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 그 둘이 일제시대에 유명했어요. 한국 사람이 대부분 다 히로시마 졸업을 많이 했어. 그, 이제, 충독부에서 아마 장학금을 쥐 가지고 가서들, 히로시마에 가서 졸업을 하고 와서 교육을, 교사가 됐는데, 그게 이제 다 친일파 선생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지. 그런데 동경사범학교는 수는 아주 적어요. 우리 나라 사람. 근데 대개가 그렇게 그, 친일파가 아니었어. 이, 함석헌—내가

す, この方が。覚えようとせずに、覚えて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らないように、こうやって見ながら読むんです。それは、学生たちに読んでやりたくないものを無理にするからそうするんだと。その校長は私たち1年生を教えたのだけど昔の書堂の先生でした。それこそ昔ながらの書堂の先生なのに、新教育を一五山学校の1回生でしたが—新教育を受け直して当時五山学校の先生をされたのですが、いつも1年生を教えていました。だから1年生として入ると、他の学校ではどうしていたのか知りませんが、我々はともかく筆を持ち墨を磨って毛筆で書きました。1年の時にそれをさせました、この方が。言ってみれば最初に書堂の生徒のように教育をし、千字文の中で一番易しい字を書かせる、という風に。この方は日本語が分かっていたみたいです。私が思うに。しかし、日本語はとにかく単語程度は使っても、韓国語と混ぜて使っていました。ところが、2年生ぐらいのときから、授業時間中は先生たちはほとんど日本語を使っていたような気がする。でも個人的に会えば韓国語で話して。それが五山学校の特徴でした。他のところでは、多分、日本の先生がたくさんいて……

福井：五山学校にも日本人の先生は？

李基文：たくさんいました。他の学校のほうがたくさんいました。

福井：次に、昔の歴史小説をお読みになりながら、自分が高句麗人の子孫だという意識を持っていたとのことですが、今でもそういうお考えを……

李基文：さあ、それは、今はそんな考えは持っていないけれども、ともかく当時は平安道の人たちは皆そんな考えをするようになった。特に私がそう考えるようになったのは、五山学校で歴史を教えていた咸錫憲という先生がいました。この名前知りませんか。咸、錫、憲。キリスト教信者で、東京の教育大学、昔の高等師範学校、その後の—お茶でも飲みましょうか?—河野六郎先生がいらしたあの教育大学かな。これが多分その学校だよ。日帝時代の高等師範学校。東京高等師範学校。東京高等師範学校と広島高等師範学校、この二つが日帝時代に有名でした。韓国人は大部分広島を卒業した人が多かった。総督府で、多分奨学金を与えて、広島を卒業して教師になったけれど、それはすべて親日派を養成するためにそうしていたんだ。でも東京の師範学校は(学生)数がすごく少なかったのです。韓国人の学生が。ところが、そのほと

한자로 써 줄까—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이 함석현 씨는 일본에서 우지무라 간조의 그, 우지무라 간조라고 알아요?

福井：예.

李基文：그 사람의 모임에 가서 기독교를 하기 시작해서, 말하자면 무교회주의. 일본의 그 우지무라의 무교회주의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무교회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교회 잡지가—아유, 뭐지? 조금 있다 생각날 거야—잡지를, 역시 또 같은 동경고사 졸업생에 김교신이라고 하는 분은 서울에 있는 양정학교의 선생을 했거든요. 그 두 사람이 그때 같이 동경고사를 다니면서 우지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도, 그런 무교회 운동을 하면서, 무교회주의자들은 잡지내고 일요일날 개인적으로 그냥 집에서 모이는 거거든요. 그 분이 오산에 와서—오산학교 졸업생이야—선생을 하면서, 거기서 우리 아버지랑 여러 사람, 몇 사람이 주말마다 집에 모여서 예배를 봤어요. 집에서. 근데 그 함석현 선생이 쓴 역사책이 있어요. 우리 나라 역사책. 그게 원래 이름이 뭐가……내가 기억력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함석현이 어디에 나올까, 어디에 나올텐데. 하여튼 조선 역사 책, 처음에는 어떤 이름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름을 좀 바꿔서 서울에서 나중에 간행이 됐어요. 단행본으로. 해방 뒤에 간행이 돼 가지고, 상당히 많이 읽혔죠. 그런데 그분이 그 역사를 일제시대에, 인제 말한 그 사람들의 무교회 잡지에 연재를 했어요. 쪽. 우리 나라 역사를. 거기서 인제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 함석현 선생의 역사책에. 그래서 자연히 우리 평안도 이쪽 지역은 원래 고구려의 옛날 땅이다, 고토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 가지고 그 고구려 사람의 기상이, 씩씩한 고구려 사람의 기상을 우리 평안도 사람들이 타고났다 하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함석현 선생의 그런 생각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쪽 가지고 왔는데, 뭐 그게 뭐, 나중에 어떤지 모르죠, 뭐. 과연 그런지, 혹은 뭐, 지금 함경도 평안도 이 일대는, 남쪽에서 이민 간 사람이 많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뭐. 하하하.

註)

함석현：咸錫憲 (1901-1989)。平安北道出身で、五山学校、日本の東京高等師範学校で学ぶ。内村鑑三の無教会主義キリスト教に共鳴し『聖書朝鮮』という雑誌を刊行した。ここで紹介されている高句麗など韓国の歴史の話も『聖書朝鮮』に連載されていたものである。朝鮮戦争後は韓国で暮らし、民主化運動の先頭に立っていた。

んどは親日派ではなかったのです。この咸錫憲は一漢字で書いてやろうか?—とても有名な方です。この咸錫憲先生は日本で内村鑑三の、内村鑑三って知ってますか?

福井：はい。

李基文：その人の集まりに行くと、キリスト教を始めたのだけど、所謂無教会主義。日本の内村の無教会主義を韓国にもってきて、韓国でもそういう無教会運動をしたのです。それで韓国の無教会の雑誌を、一何だった?また後で思い出すだろう—やはり同じ東京師範学校卒業生の金教臣という方がいて、ソウルの養正学校の先生をしていたのだけど、この二人がその頃一緒に東京高師に通いながら内村鑑三の影響を受けて、韓国に戻ってから無教会運動をしながら、無教会主義者の雑誌を作って日曜日にただ個人的に集まるものだったのです。その方(咸錫憲)が、五山に来て一五山学校の卒業生なのだが—先生をしながら、そこで、私の父と何人かで日曜ごとに家に集まって礼拝をしました。家で。ところでその咸錫憲先生が書いた歴史の本があります。韓国史の本。その名前は何だったか、こんなに記憶力が落ちてしまいました。咸錫憲がどこかに出ているはずだけど、とにかく朝鮮史の本。最初は別の名前が出て、あとで名前を少し変えてソウルでも刊行されました。単行本として。解放後に刊行され、とてもよく読まれました。ところでこの方はその歴史を日帝時代に、さっき話した無教会(主義者の)雑誌にずっと連載をしていました。そこで高句麗についての話をたくさんしていました。咸錫憲先生の歴史の本に。それで自然と平安道側の地域はもともと高句麗の土地、故地だ、こんな考えがあって、その高句麗の人々の気性、たくましい高句麗人の気性が、我々平安道の人々の間にも生きづいているという考えを、自分でも気づかないうちに、咸錫憲先生のそういう考えに影響を受けて持つようになりました。それで、そんな考えをずっと持ち続けてきたのだけど、それは、よくわかりません。本当にそうだったのか、あるいは、今の平安道、咸鏡道の一帯は後に南から移民に行った人々が多か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本当の所はよくわからない)(笑)

#### 4 中国との関係

福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평안북도에서는 중국에 가깝잖아요. 중국 사람하고도 많이 교류를 했습니까?

李基文： 그런 게 없어요. 역시 일제 시대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만 그 중국 사람들이 가끔 우리 그, 상당히 넓은 그런 지역에서 보면은, 서너 군데, 중국 농민이 나와서 땅을 사 가지고 자기네 식의, 그, 밭농사를 해요. 그 사람들은 논농사는 할 줄 모르고 밭, 야채 같은 거 이런 걸 하는데, 아주 참, 훌륭했죠. 야채가. 그래서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사 먹고 그러는데, 그런 그 중국 사람들이, 인제, 통해서 중국말도 뭐 좀 배우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 그, 거기에 나온다. 평안도의 그런 이야기는, 김동인이라는 소설가 있죠?

福井： 예.

李基文： 그 사람이 쓴 소설에 감자. 유명한 단편 소설.

福井： 읽어 봤습니다.

李基文： 아, 그래요? 거기에 중국 사람 나오죠? 그 사람도 말하자면, 그런 중국 사람으로서의 농장 주인이야. 그래서 돈 번 거야. 거기서. 그런 사람들이 평안도에는, 감자 생각을 하면 금방 되는 걸. 하하하하, 그랬어요. (김동인) 평안남도 사람이라, 그런 게 평안남도에까지 있었던 것 같아.

어때, 커피를 하겠어요? 차를 하겠어요?

福井： 예, 차를 하겠습니다.

李基文： 커피는 점심 먹고 하지.

福井： はい。分かりました。それから、その当時、平安北道は中国に近いので、中国人とも交流がたくさんありましたか？

李基文： それはありません。やはり日帝時代だからそうだったのか。但し、中国人たちがときどき、そのかなり広い地域の中で3, 4か所、中国の農民が出てきて土地を買い、自分流の畑作農業をしていました。彼らは水田はできなくて、畝で野菜などを作るんですが、その野菜が本当に立派でした。それで、とても人気がありました。そしてその住民がそれを買って食べたり、(その人たちを)通して中国語も少し習ったり、そんなことがありました。あ、そうだ、あそこに出てくる。平安道のそういう話は、金東仁という小説家知ってますね？

福井： はい。

李基文： 彼が書いた小説の「甘藷」。有名な短編小説。

福井： 読んだことがあります。

李基文： あ、そうですか。そこに中国人が出てくるでしょう？ そういう人たちも、言ってみれば中国人の農場主だった。それでそこで金を稼いで。そういう人たちが平安道に(いました)。「甘藷」のことを思い出せばすぐに説明できたのに。(笑)(金東仁は)平安南道の人なので、そういうことが平安南道にまで広まっていたみたいだ。

コーヒーを一杯どう？ お茶にする？

福井： はい、お茶にします。

李基文： コーヒーは昼食後にしよう。

#### 5 平壤の兵器廠での労働と解放

福井： 그 다음 질문인데요. 해방 1년 전에 평양 병기창으로 강제노동에 끌려갔다고 들었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李基文： 글쎄 그거 뭐, 병기창이라는 게, 내가 한 일은, 뭐, 전체로서 뭐하는지는 잘 모르고, 내가 한 것은……, 우리 학교, 여러 학교가 왔어요, 그때, 거기에. 그리고 이제 방이라는 게, 뭐 이렇게, 마루를 깔아 가지고 한 방이, 상당히 넓은 방들을 썼는데, 그 안에 그저 한 4,50명씩 같이, 그냥, 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은 낮에 일하고 일주일은 밤에 일하고. 이런 식의, 인제, 일을 했고. 그때 거기서 우리는 주로 고사포, 고사포 알이라고 그랬어요-고사포의 그, 포탄을 만든 거 같애. 근데 뭐 모르죠, 나는 나사못 깎는 거만 가지고, 나사못을 하루에 합격품을 50개를 깎아야 돼. 하여튼 그런 식의 그,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지만 나중엔 뭐 숙달이 되니

福井： 次の質問です。解放の1年前に平壤の兵器廠で強制労働に駆り出されると聞きましたが、その時の状況はどうでしたか？

李基文： さて、それは、兵器廠というのだけれど、自分がやった仕事が、全体として何をしていたのかはよく分らず、私のやったことは……、我々の学校や、いろんな学校から来ていました。その時、そこに。それから部屋というのが、床板を敷いた部屋で、かなり広い部屋が割り当てられてその中で約4, 50人ずつ一緒に泊っていました。それから一週間は昼間に、一週間は夜に仕事をするという風に仕事をしました。その時、そこで私たちは主に高射砲-高射砲の弾だと言っていました-高射砲の砲弾を作っていたみたいです。ただ、よくは分かりません。私はネジを切ることだけやって、ネジを一日に合格品50個作らないといけな。とまあそんな

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역시 기계가 좋질 않았어요. 그때 그, 벨트를 가지고 하는 그런 그, 선반기계는, 아주 흔들림이 많아서, 제대로 나사 못 같은 고런 미세한 거는 잘 깎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꼭 규격에 맞게 하기가 참 어려운데, 일부는, 아주 새로운 기계가 그때도 들어왔었어요. 벨트로 안 하고 어떻게 요렇게 해서 딱 하는, 고런 기계, 고거로 하면 아주 쉽게 잘 깎이고. 그런, 그 일을 가지고, 그냥, 그때 쪽 했는데.

福井： 그때가…….

李基文： 응, 44년, 44년 가을에 가서 45년 8월 17일까지 있는 셈이지.

福井： 중학생……

李基文： 중학교, 중학교, 그러니까 3학년 때죠. 3학년에서 4학년.

福井： 그러면 해방은. 그럼 평양에서, 해방을……

李基文： 해방을 평양에서 맞아서, 그래서 근데, 그, 8월 15일날, 낮에 다, 갑자기 모이라 그래서, 모이니까, 뭐인가 라디오 방송을 들으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뭐, 들려야지. 뭔가 천황이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선생이 아, 이제 우리 나라 독립됐다고. 선생이 와서 그러드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그 안에서, 큰 소리로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이틀 동안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일본 사람들도 그 전에는 형편 없는 음식을 줬거든요. 음식이라는 게 뭐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그런 식의 음식들을 줘서. 결국은 뭐 다들, 그때 다 농촌에 있었던 가정에서 온 학생이 많았잖아요? 그게 가지고 집에서 미숫가루를 가져다가 그걸 타서 먹고, 떡도 그냥, 면회를 오면 떡 가져오고, 그런 거 먹고, 이려고 해서. 그리고 2주일마다 하루씩 외출을 허가했어요. 나는, 단 학생들은 뭐 외출을 해도 평양 시내에 나가야 뭐, 그때 평양 시내에서 우동같은 것도 뭐, 좀처럼 사 먹을 수 없었어요. 일제 말기니까. 근데 나는 평양에 내 친척들이 여러 분이 계셨기 때문에, 아주 뭐 휴일만 되면 나가서 아주 포식, 잘 먹고 왔죠. 그래서 단 애들보다는 훨씬 참, 편하게 나는 지낸 셈인데.

## 6 父と兄について

福井： 그리고 선생님 그, 쓰신 글에는 자주 그 선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떤……

李基文：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이름은 이찬갑이라고, 역시, 그, 오산학교 출신이고, 뭐, 학교는, 사실은 오산학교 졸업도 못했어. 그때

나쁜 일을 했습니다. 처음은 상당히 어려웠지만, 그나마는 익숙해서, 그런대로 할 수 있었지만,やはり機械があまり良くなかったのです。その時, ベルトで動かす旋盤の機械で, すごく揺れが多くて, ネジのような微細なものはうまく削れないのです。それできちり規格に合わせて作るのが本当に難しかったけれど, 一部は新しい機械が入ってきていました。ベルトではなくて, こうやってそのまま使うような機械, それを使えばとてもうまく削れて. そういうことをずっとやっていました。

福井： その時が…….

李基文： 44年. 44年の秋に行って, 45年の8月17日までいたわけです。

福井： 中学生……

李基文： 中学校. 中学校の3年の時でした. 3年から4年にかけて。

福井： それでは, 解放は. 解放は平壤で……

李基文： 解放は平壤で迎えましたが, その8月15日の昼に, 急に皆集まれとって集まったら, 何かラジオ放送を聞けと言うんだ. 何なのか, 聞こえないことにはよく分からないのに. 何か天皇が言っているというのだけどよく聞こえないのです. しかし先生が, ああこれで我が国が独立したと. 先生が来てそう言いました. そういっても, その中では大きな声をあげるわけにもいかず, とにかく二日間その中にいました. 彼ら, 日本人たちも, その前はみずばらしい食事しかくれませんでした. 食べ物と言ってもとても食べられないようなものが与えられました. 結局, その時は皆農村の家庭から来ていた学生が多かったので, 家から, 煎り粉を持ってきてお湯に溶いて飲んだり, 面会に来れば餅を持ってきてくれたり, そういふものを食べていました. それから2週間おきに一日, 外出が許されました. 他の学生は外出をして平壤市内に出ても, その頃の平壤ではうどんのようなものさえもなかなか食べられませんでした. 日帝の末期なので. しかし私は平壤に親戚が何人もいたので, 休日になりさえすれば, 飽食, たくさん食べてきました. だから他の子たちよりはずっと楽に過ごしたわけです。

福井： それから, 先生の書かれた文章には先親(父)という表現がたくさん出てきますが, 具体的にはどんな……

李基文： 私の父は, 父の名前は李賛甲と言ってやはり五山学校の出身で, ただ, 学校は, 実は五山学校を卒業できませんでした. その頃, 本当



아주 야구를 잘 했다 그래. 야구 선수로 유명해서, 오산학교 그 야구부가 뭐, 그때 상당히 강했던 모양이야. 야구를 잘 해가지고, 해서, 뭐, 졸업은 못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의 배재중학교라든가 뭐 이런 유명한, 이제 그 운동 잘하는 중학교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들 스카우트를 해서, 서울에 와서도 아마 야구 선수를 하고, 그때 야구 그쪽으로 나갔더라면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아마, 야구 선수가 돼서 우리나라 초창기죠 뭐, 야구라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 이야긴데 20년대 이야긴데.

福井: 20년대라면 일본에서도 그렇게 야구를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李基文: 그때 그래서 뭐 일본 팀하고도 해서 이기고, 그래서 아주 상당히 인기가 좋았대요. 근대 이 양반이 그 뒤에 운동하고는 완전히 손을 끊었어요. 내가 어딘가 좀 글을 썼는데,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하여튼, 그 뒤에 생각이 많아서, 일본에 가서는 주로, 일본의 농촌 운동 하는 사람들, 덴마크 식의 농촌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 몇 군데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가서, 몇 달씩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어떻게 교육을 하며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덴마크 식의 그런 농촌 운동, 소비조합 운동,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산에 돌아와서도 인제 소비조합도 만들고, 이런, 농촌, 우리나라 농업개발 운동 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농업조합도 만들고 말이지요, 일제시대에. 자기 자신도 이제, 과수원을 했어요. 사과나무가 주지마는 여러 가지 나무의 과수원, 아주 그제 나중에 대성공이었지. 일제 말기에 참, 그것 때문에 우리 집안은 뭐 별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궁하지 않게 말이지요, 지낼 수가 있을 정도로. 우리 집의 사과가 제일 아주 품질이 좋아서 언제나 그, 에이급으로 참, 또, 일제 말기에는 사과를 나라에서 전부 사들였으니까. 공출, 공출이라고 했잖아요. 일본에도 있었는지 몰라, 공출이라는. 공출을 해도, 상당히 제일 좋은 값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잘 값을 많이 받고 뭐 그랬다. 나도 그때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결국은 그런 그, 우리 나라를 살리는 길은 이 농촌을 살려야 된다는 게 우리 아버지의 일생 동안의 생각이예요. 그래서 월남해 가지고도 어떻게든지 이 농촌 교육, 농촌 사람들을 각성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려 가지고, 농촌을 살려야지 지금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나라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도 역시 농촌 운동, 농촌 운동을 하려면 역시 교육을 해야 한다, 해서, 특수학교, 농촌 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게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충청

에野球がよくできたそうです。野球選手として有名で、五山学校の野球部がその頃たいへん強かったようです。野球がよくできて、卒業できずに、ソウルにやってくる、ソウルには培材中学校などのようなスポーツで有名な中学校があって、そこでスカウトして、ソウルに来てからも、野球選手をして、野球の方に進んでいけば、韓国の代表的な選手になっていたでしょう。韓国野球の草創期に。私が生まれるより前の20年代の話だけど。

福井: 20年代というと日本でもそんなに野球をやっていたのかよく知りません。

李基文: その時、日本チームとも試合をやって勝って、それでとても人気があったそうです。しかし父はその後スポーツとは完全に縁を切りました。私がどこかに文章を書いたことがあるのだけど、父について。

ともかく、その後あれこれ考えが多くて、日本に行っては主に日本の農村運動を人たち、デンマーク式の農村運動をやるする人たちが日本の何か所かにいたみたいです。そこに行って、何か月もいて、そうしながら、どのように教育をしてどう行うのかということ。それで父はその後デンマーク式の農村運動、消費組合運動などにとっても関心を持っていました。そして五山に戻ってから消費組合を作り、農村、韓国の農業改良運動などをたくさん行いました。農業組合も作ったりして、日帝時代に。自分自身も果樹園をやっていました。リンゴが主だったけどいろいろな木の果樹園をやって、その後大成しました。日帝時代の末期に、そのためにわが家はそれほど経済的に困ることなく過ごすことができるほど。わが家のリンゴが一番品質が良くて、いつも A 級でした。それから日帝の末期にはリンゴを国で全部買い取っていましたから。供出、供出と言っていました。日本にもあったのか分かりませんが、供出というのが。供出をしても一番いい値段でやったので、いい値段で売れました。私もその時のことを覚えています。そして、そういうことをやっていたので、結局、韓国を生かす道は農村を生かさなければならぬというのが父の一生の考えでした。それで、越南してからも、どうにかして農村教育、農村の人々を覚醒させて、その人たちが目覚めて、農村を生かさないといけない、このままでは国がだめになる。そう思って、ここでもやはり農村運動、それをやるためにはやはり教育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って、特殊学校、農村学校を建て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のが主な目的でした。それで結局、忠清南道に行つて、ブ

남도에 가서 풀무학원이라는 학원을 세웠어요. 충청남도 홍성군에—홍성이라고 알죠?—풀무학원이라는 학원을 세워 가지고, 거기 원래 그 고장 출신의 목사가 한 분 좋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뜻이 맞아 가지고, 우리 고향에다 갖다가 세우자,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풀무학원을 세워서, 거기서 인재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근데 일본에도 그 비슷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촌 특수학교들. 이거는 그러니까, 문교부에서 정식 인가를 받은 그런 정규학교가 아니고, 일종의 특수학교예요. 준, 말하자면, 그런 것도 뭐, 문교부가 인정을 하는데, 무슨 그런 정식 학교는 아니예요. 커리큘럼 같은 것도 꼭 정식 학교 걸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자유로운 학교죠. 그런 학교를 세웠는데, 그 시골에서 3년젠가? 4년젠가? 그 구공탄이라는 게 있었죠? 이렇게 구멍이 아홉 개인 연탄. 석탄인데 동그랗게 해서 구멍 아홉 개 이렇게 해 가지고, 요새도 왜 길거리에서 혹시 무슨 오징어같은 거 구워서 팔 때 그런 거 쓰잖아요? 구공탄, 구공탄이라는 거. 그때는 뭐, 전부 그거 썼어요. 지금 이런 스팀이니 뭐, 이런 게 없었을 때니까 서울도 전부 구공탄으로. 각 집마다 부엌에 그거 쓰고 겨울엔 방마다 전부 구공탄으로다가 해서 난방을 했죠. 근데 구공탄이 그게 잘못하면은 중독이 돼요. 시골에서 그만 구공탄 중독이 돼서 쓰러지셨어. 그래 가지고 결국은 몇 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때 그 구공탄 중독이 된 원인이, 거기 학교의 젊은 선생님이, 아니, 선생님이 연세도 많은데 밤에 추우시겠다고, 해서 구공탄, 완전히 편 거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편 거를 방에다 들여놨어요. 그래서 중독이 되셨다고. 그게 완전히 피질 않았던 거지. 구공탄이. 그래서 그 젊은 사람이, 참 그것 때문에, 아주 우수한 사람이예요, 그 사람이. 홍순명이라고 지금도 그 풀무학원의 교장을 하고 있는데, 아주 참, 그 양반은 뭐, 글씨 꼭 전공은 뭐 한 게 없으니깐 학자, 무슨, 한 방면의 학자는 아니지만, 어학도 대여섯 하고 말이죠. 영어니 뭐니 하는 것도 나보다 더 잘 해요. 그 왜냐하면 풀무학원에는 또, 미국 같은데서 그, 자원봉사로 대학생이 거의 해마다 와 있어요, 거기. 영어도 가르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사람하고 언제나 같이 사니까 영어도 아주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러시아어까지. 러시아어도 톨스토이도 번역하고 그랬어요. 아주 참, 어학도 잘하고 이런,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 교장을 하고 그래서 그 학교가 우리나라에서 특수한 학교로서는 그런 식의 학교로서, 아주 저, 유명해요. 풀무학원이라는 게. 풀무라는 게, 풀무, 저 식품 해가지고 요새 우리 나라의 그, 뭐예요.

ブルム学園という学園を作りました。忠清南道、洪城郡に一洪城郡って知ってますか?—洪城郡にブルム学園という学園を作り、そこにひとりもともとそこの出身の牧師でとてもいい方がいて、その方と意気投合して、うちの故郷に建てましょうということになり、ブルム学園を作り学生を募集しました。ところで、日本にもそれに似た学園があります。農村の特殊学校。これは、だから、文教部で正式に認可を受けた、そのような正規の学校ではなく、一種の特殊学校です。準(学校)とでもいうような。そういうものでも、文教部が認定をするのですが、正式な学校ではありません。カリキュラムのようなものも必ず正式の学校のものに従う必要はなくて、かなり自由な学校です。そういう学校を作ったのですが、その田舎で、3年目だったか4年目だったか、「九孔炭」というのがありますよね。その当時。こんな風に穴が9つ開いている練炭。石炭を丸くして穴を9つ開けて、最近でも道端で何かイカのようなものでも焼いて売る時にそういうの使いますよね。九孔炭というやつ。当時は何にでもそれを使いました。今は、こういうスチームのようなものがありますが、それがない時代なので、ソウルでもみな九孔炭を使いました。どの家でも台所でそれを使い、冬には部屋ごとにすべて九孔炭で暖房をしました。ところでこの九孔炭というのは間違っただけで中毒になることがあります。その田舎で、(父は)九孔炭の中毒になって倒れてしまったのです。そして、結局、何年か苦しんで亡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その時、九孔炭の中毒になった原因は、その学校のある若い先生が、(李賛甲)先生はお年でいらっしゃるので夜は寒いだろうとあって、九孔炭を、完全燃焼していれば大丈夫だといって部屋に入れたのです。そして中毒になってしまった。つまり完全燃焼していなかったのです。九孔炭が。ところでその若い先生というのがたいへん優秀な先生でした。洪淳明という、今もブルム学園の校長をしているのですが、この方は何というか、専門がこれだというのはなくて、学者、何かの方面の学者というわけではないのですが、語学が五六か国語ぐらいできるんです。英語でも何でも私よりずっとよくできます。なぜかという、ブルム学園にはアメリカなどからボランティアで大学生が毎年来ています。英語も教えるし、そういう人たちといつも一緒に暮らしているので、英語もとてもうまいし、中国語もうまいし、ロシア語までできるし。ロシア語はトルストイの翻訳までしました。本当に、語学もよくできる、そういうとても立派な方が校長をしているので、こ

福井：저도 그 풀무라는 이름 들어본 적이 있는데……

李基文：그런데 그거하곤 달라요. 풀무라는 이름이 그거는 널리 알려졌는데, 풀무라는 건 원래 대장간에서 이 불, 쇠를 달구려면 불이 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풀무거든. 대장간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게 풀무거든. 근데 그 거기 지명이 풀무야. 그래서 풀무학원인데, 요새도 보면은 일본에서도 그 비슷한 자매학교들이 있어서, 말하자면 덴마크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는, 본래는 그랬지만 이제는 뭐 덴마크와는 별로 관계 없고, 그래도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해서 농촌 운동을 하고, 농업도 지금은 또 특히 이런 이, 화학비료 안 쓰고, 하는 그런 농업, 그래서 쌀, 논도 오리, 오리로 농업을 하고 여러가지 이런 거 연구를 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도 지금, 나도 그 후원회 회원인데 거기서 생산되는 쌀 같은 거, 이렇게 사서 먹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런 걸 한 분인데, 그게 이제 뭐 했지만, 완전히 이제, 기독교 신앙이 역시 토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촌운동 하고, 뭐 이런 분인데. 특히, 그래서 나중에 우리 형님이 거기, 여기도 나오죠, 내가 이야기한 대로, 형님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그건 일제시대에 벌써 그렇게 했고, 일제시대에 사실은 그 일본의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 아버지가 또 고집을 해서 일본의 사립대학을 가라, 그래 가지고 와세다 대학에를 갔어요. 우리 형님이, 그래 가지고 했는데, 역시 역사를 해서 해방 뒤에 서울대학에, 잠깐 역시 일년 동안에 졸업을 해서, 역사, 한국사 신론이라는 책 알죠? 우리, 이 기 백이라고, 우리 형님 모르시나?

福井：아, 역시 이기백 선생님이 형님, 아, 뭔가……

李基文：우리 나라에서 말하자면 제일 많이 팔린 역사책인데 일본말로도 물론 번역됐고 영어로도 번역됐고.

福井：그 이름은 자주 보는데 혹시 그런가 하는 생각……

李基文：아이구, 뭐, 나보다도 사실 훨씬 훌륭한 학자지요. 진짜 학자지. 우리 형님은, 참, 요새도 뭐 얼마나 지금도 열정이 많으신지. 이 책 없으면 하나 가져. 이게 신수판이면 괜찮을 거예요. 난 이 책이 여러 권 있어요. 아, 1990년이네. 신수 초판이야. 이것도 오래된 거다. 요새 새로 나

의 학교는 한국で, 特殊学校として, そういう種類の学校としてとても有名です. プルム学園というのが. プルムというのは, 近頃は食品を作って知られていますね, あの何というか.

福井：私もプルムと言う名前は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が……

李基文：それとは違います. プルムという名前は広く知られるようになったのですが, プルムというのはもともと鍛冶屋で鉄を鍛錬するときに強い風を送らないといけなんでしょう? そのときにこうやって使うのがプルム(ふいご)です. 鍛冶で風を起こす, それがふいごです. しかし, プルムはその地名なんです. だからプルム学園と. 最近では日本でも, 同じような姉妹学校があって, 本来はデンマークでやっていたような考えを持ってやっていたものが, 今はデンマークとは関係がなく, それでもキリスト教の信仰を基礎として農村運動を行い, 農業も今は特に化学肥料を使わない農法をやって, それから米, 水田も合鴨農法をするなどいろいろと研究しています. そして, そこでも今, 私の後援会員になっていて, そこで生産される米などを買って食べたりしています. とここで, 私の父はそういうことをやってきた人だったのですが, やはりそれは完全にはキリスト教の信仰が土台になっていて, その次に農村運動をやったという, そういう方でした.それで, 後に私の兄が, そこで(その本で)私が話したように, 韓国の歴史をやったのですが, それは日帝時代にもうやっていて, 日帝時代には日本の高等学校に行きたがっていたのですが, それもやはり父が言い張って, 日本の私立大学に行けとあって, 早稲田大学に行くことになりました. 兄はそれでそうしたのですが, やはり歴史をやって, 解放後に少しだけ, ソウル大学に1年間だけいて卒業しました. 歴史, 韓国史新論という本, 知ってるでしょう? 兄は李基白というんですが, 知りませんか?

福井：あ, やはり李基白先生がお兄さんでしたか……

李基文：韓国で, 言うならば一番売れた歴史の本で, 日本語はもちろん英語にも翻訳されています.

福井：そのお名前はよく見ますが, やはりそうだったのですね. という気が……

李基文：本当に私よりもずっと立派な学者です. 本物の学者だよ. 兄は. 今もどんなに情熱に満ちているか. この本(『韓国史新論』), なかったら一冊あげるよ. 新修版だから大丈夫です. 私は何冊か持っているから. 1990年の新修初版ですね. これも(出てから)かなり経っていて,

은 것도 있을텐데.

내가 이제 국어를 하게 된 게,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특히 내가 태어난 30년대, 그때 20년대 말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우리 말로 된 책은 다 산다, 이런 주의였어요. 그래서 우리집에 하여튼 책으로 쌓여 있었어. 상당히 큰 집이었는데, 어, 그, 뭐, 시골의 아주 큰 기와집이었거든요. 방도 많았고 사랑, 우리나라에는 특히 사랑이라는 게, 사랑채가 있잖아요. 손님들 오면 있는 데가 사랑이고. 사랑채가 있고 이렇게 해서 안채 뭐 해서 아주 집이 커서 어렸을 때는 어디 밖에 나갔다가 대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마음에. 대문 열면 대문이 소리가 찌깁 하는 소리가 나면, 그냥, 뒤에서 누가 와서,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고. 이제 그래서 그런 집에, 하여튼 우리나라 책이, 그때 뭐 우리 나라에서 한국말로 간행되는 책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래도 뭐 하여튼 나오는 거마다 다 샀어. 서울에 올라왔을 때에 물론 사기도 했지만 올라오지 않아도 사람들 부탁해서 사고 해서 그래서 난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 책 많이 보고 이제 자랐는데 나중에 학교에 가서도, 학교에 가면 일본 교과서 보지만 집에 오면 우리나라 책 보고. 완전히 이중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 참, 해방돼서도 다른 학생들은 다 뭐, 이, 한글맞춤법이다 이런 데 서툴고 문제가 많았지만 나는 뭐 별로 아무 문제가 없이 쪽 그대로 할 수가 있었던 게 일제시대에 집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버지 주장이, 우리 민족이 우리 역사하고 말, 언어하고를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우리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언제라도 독립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우리 역사 우리 말을 공부하라, 이걸 언제나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 영향을 내가 받아서 아마 우리말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때 일제말기 그때에도 저기, 우리 한글학회 그때는 조선어학회죠, 거기서 내는 한글이라는 잡지, 이런 것도 내가 다 읽고 그랬어요. 학생으로서, 그때에 그런 거 읽은 학생이 아마 우리나라에 중학생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물론 서울에 와서 인제 영어 불어 뭐 해서 불문학같은 데 특히 관심도 많아져서, 혹시 뭐 좀 불문학에 가 볼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역시 어렸을 때부터 했던 국어학 하게 됐는데. 또 중요한 이유라고 할까, 그때 서울대학교에 방중현 선생이라고 교수가 있는데 역시 오산학교 졸업생이야. 그 우리 고향 사람이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하고 또 중학교 동기생이야. 그래서 하여튼 내가 서울에 왔을 때, 해방 뒤, 서울에 와서부터 방중현 선생하고 우리 아버님이 자주 만나고 그랬으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국문과에 온다고 이래서. 아주 방중현 선생도 나를 기대를

最近はもっと新しい版もあるはずだけど.

私が国語をやるようになったのは, 幼い時から, 特に私が生まれた1930年代に, 当時1920年代末から, 私の父は, 韓国語で書かれた本は全部買う, そういう主義でした.それで私の家は本が積み重なっていました.かなり大きな家だったのだけど, 田舎のとても大きな瓦屋根の家でした.部屋もたくさんあり, 客間(舎廊), 韓国には「舎廊」というのがありますよね.お客さんを迎えるところが舎廊で.舎廊があって, 母屋があって, 家がとても大きかったので幼いときは外に出かけてから帰ってきて門を開けて入る時に内心どれだけ怖かったか.門を開けてギーッと音がすると, 後ろから誰か来はしないかと.大きな音がして.ともかく, そういう家で韓国の本が, 当時はまだ韓国語で刊行された本はそんなに多くなかったのだけでも, とにかく出るたびに全部買いました.もちろんソウルに来るときに買ったりもしましたが, 来なくても人に頼んで買ったりして, 私は幼いころから韓国語の本をたくさん見て育ちましたが, 学校に行ってから, 学校では日本の教科書を見るけれど家では韓国の本を見ました.完全に二重生活をしていたわけです.解放後に, 他の学生たちは, ハングルの綴字法だの何だの, そういう方面には疎くて問題がたくさんあったのだけど, 私は何の問題もなく, ずっとそのままやってこれたのは日帝時代に家でそのようにしていたからなんです.私の父の主張は, わが民族が, 自分の歴史と言葉を忘れない限りは, わが民族は絶対に滅びない.いつでも独立することができる.それで私たちに, 我々の歴史と言葉を勉強しなさい, これをいつも強調していました.私はそういう影響を受けて言葉を研究するようになったと思います.その頃, 日帝の末期にも, 「ハングル学会」, 当時は「朝鮮語学会」でしたが, そこで出していた『ハングル』という雑誌, そんなものも全部読んだりしていました.学生として, 韓国の中学生の中でそんなものを読んでいた学生がいたでしょうか.ところで, その後, もちろんソウルに来て, 英語, フランス語などをやりながら, 仏文学などにとっても関心をもつようになって, 仏文科に行こうかどうしようかなどと考えたりもしたが, やはり幼い時からやっていた国語学をやることになりました.もう一つ重要な理由というか, そのときソウル大学校に方鍾鉉先生という教授がいらっしゃって, この先生もやはり五山学校の卒業生で, 同郷の人でした.そして父と中学校の同期でした.それで, とにかく私がソウルに来たときに, 解放後, ソウルに来てから方鍾鉉先

많이 하고 이랬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국문과를 택하게 되고 국어를 연구하게 됐는데 뭐, 우리 아버지 영향이 아주 컸다고 할 수 있어요.

註)

이찬갑:李賛甲(1904-1974)。李基文先生の父。李賛甲の生涯については、백승중(2002)に詳しく紹介されている。

韓国史新論:李基文先生の兄である李基白(1924-2004)による韓国の通史。初版は1967年刊行, 新修版は1990年にソウルの一潮閣より刊行された。

방종현:方鍾鉉(1905~1952)。京城帝国大学法文学部朝鮮語科を卒業し, 解放後は京城大学予科教授を経て, ソウル大学校文理科大学教授および学長を務めた。

## 7 解放と越南

福井: 그러면 그 다음에, 서울에는 언제 어떻게 가셨어요?

李基文: 음, 그러니까, 45년에 해방됐죠? 그 다음에, 45년 가을, 그, 한 일년 동안, 그 뒤, 46년? 이것은, 내가 이북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북의 교육도 조금 받았죠. 거기서도. 러시아어도 그때 좀 배웠고. 러시아어 내가 지금, 그 뒤에 서울에 와서도 물론 문리와 대학에서 다시 좀 공부했지만. 러시아어 기초는 역시 이북에서 처음 배운 거, 그게 도움이 됐어요. 러시아어도 배웠어요. 그러다가 47년 봄에, 서울로 왔어요. 그때 인제 우리 집안이 시골에서 역시 지주라고 그래 가지고, 뭐, 사실은 과수원같은 건 자작농이었는데 그 밖에 이제 땅도 좀 논도 밭도 밭도 있어서, 말하자면 지주로 평가됐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지주라는 걸 좋지 않게 생각해 가지고, 해방 되자마자 사실은 그, 땅에 대한 권리를 거의 포기했어요. 이권 안된다, 지주 생활하는 거는 이권 좋지 않다, 이권 원래 자기 생각이 아니다, 우리 나라 농촌에 지주 소작 이렇게 있는 건 이권 좋지 않다고 해서 지주로서의 권리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그렇다고 뭐, 땅 소유까지 완전히 이전해서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 내 보기에는. 그래도 하여튼 농사를 지으면은 뭐, 과거에는 소작농이라면 반, 반씩이었죠? 주로, 아마? 내 생각에, 우리나라에서는. 지은 사람이 50퍼센트, 주인이 50퍼센트, 아마 이렇게 대개 가졌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4·6, 지주가 4 가지고 지은 사람이 6 가지는 것이 아마 보통이었고, 그런데 뭐, 해방 뒤에는 우리 아버지는 뭐, 거의 그냥, 다 포기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소작농들이 그냥, 자진해서 쌀을 조금씩 갖다 주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던 거로 내가 기억을 해요. 그러나 하여튼 그게 역시 지주니까.

평안도에는, 우린 해안가지마는, 정주군이 해안가 아니에요? 경의선 철도에 있는 해안가지마

生と父がよく会ったりして, 私の息子が国文科に行くと言って. 方鍾鉉先生も私のことをとても期待していました.それで, 自然に国文科を選ぶことになり, 国語を研究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が, それには父の影響がとても大きかったと言えます.

福井: それでは, 次に, ソウルにはいつどのよう  
にいらっしゃったんですか?

李基文: それは, 45年に「解放」され, その次に 45年秋から, その後一年間, 46年まで私は北にいました.それで北の教育も少し受けました.そこでも.ロシア語もその時少し習いました.ロシア語は, 私はその後ソウルに来てからももちろん文科大学でもう一度少し勉強しましたが, ロシア語の基礎はやはり北で初めて勉強したのが役に立ちました.ロシア語も勉強して, そうこうするうち47年春にソウルにきました.その時, 私の家系がやはり田舎で地主だったので, と言っても実際には果樹園などの自作農でしたが, その他に土地も, 水田も畑も少しあって.それで地主と判断されてしまったのです.そして父が地主であるということをよくないことと考えて, 解放になるや否や, 土地に対する権利などほとんど放棄しました.これはだめだ, 地主の生活をするのはよくないことだ, これはもともと自分の考えではない, 我が国の農村に地主と小作人がいるのはよくないことだといって, 地主としての権利をほとんど放棄するかようにして.だからといって, 土地の所有まで完全に移転してやろうとまでは考えていなかったのです.私の見るところでは.それでも, 農業をやるとなれば過去には小作農は半, 半だったでしょう?多分, 普通, 韓国では.耕作をした人が50パーセント, 主人が50パーセント, 多分普通はこうしたはず.その後, 4対6, つまり地主が4とって, 小作人が6をとるのが普通になり, 解放後に私の父は, ほとんど放棄するかのごとくしたので, 小作人たちが進んで米を少しずつ分けてくれたり, こんなふうにしていたと私は記憶しています.しかし, やはり地主であることには違いがないので.

平安道には, 私たちの住んでいた定州郡は海

는, 그래서 사실 논이 좀 많긴 한 지역이지마는, 그래도 평안도는 뭐 농토라는 게 아주 적은 데거든요. 그래서 이, 전라도 같은 데는 소위 만석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석. 일년에 소출 만석, 한다면 대단한 부자거든요 만석군. 이, 무슨 동아일보의 김성수 씨라든가 이런 분들 다 전라도 만석군의 그 후손들 아니에요? 그런데 평안도에서는 천석을 해도 대단한 부자였거든, 천석도. 뭐, 대체로 천석이라고 해도 실제 따지고 보면 천석 채 못 돼요. 다, 그저, 오백석 뭐 그런 식의. 그런, 그 땅이 척박하니까 땅이 좋질 않으니까, 그렇게, 그런 농업이, 조금만 산골로 들어가면 전부 저, 이, 그런, 벌써 논이 없고 밭인데 밭도 전부 수수라든가 이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심었지 아유 얼마 안 됐거든요.

福井：그럼 그때 온 가족이……

李基文：그래서 전 가족이 다 넘어왔죠. 전 가족이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도 있고 해서 기독교 신자에 대한 박해가 많았잖아요. 본래 우리 동리라는 거는, 그것이 거, 우리, 같은 일가친척이 모여서, 내가 세 보니까 스물 한 가구였어요. 스물 한 집이었어요. 근데 거의가 다 친척이야. 같은 이 씨고. 거의 다 넘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북에 무슨, 이번에 저, 이북들 간다고 가족 만났다고, 그런 필요도 우린 없게 된 셈인데.

福井：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소식……

李基文：모르죠 뭐. 그 왜, 유명한 문선명이라고 있잖아요. 그, 저 뭐, 일본에선 뭐라 그러죠?

福井：통일교……

李基文：통일교라 그러냐? 그 문선명이 또 역시 정주군 출신이야. 그래서 한때 문선명이 이북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 가지고 그때 뭐 좌우간 엄청난 돈을, 2억 달린가, 3억 달러를 주고, 자기 고향에다가 통일교회를 짓는다. 그 교회라는 게 같은 우리 군인데, 우리, 내 고향, 내 고향에서는 한 20리, 30리까지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런 교회를 짓는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다, 김일성이 오케이를 했다, 그래서 지금 짓고 있다,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어떻게 됐는지 그 뒤에는 내 그건 모르는데.

福井：그래도 역시 가고 싶다는 생각은……

李基文：물론 가 보고 싶죠. 가 보고 싶은데, 뭐, 지금과 같은, 지금 이 남북 가족 만났다 해도 고향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서울이면 서울의 호텔에서 만나는 거지, 평양은 또 평양대로 그냥 만나는 거지, 고향에 가서 뭐, 조상들 산소에 가서, 뭐, 가고, 뭐, 이, 자기 고향 집에 갈 수 없어요.

岸の近くでしょう?京義線の鉄道がある海岸だけれども、それで水田も他よりは多い地域ですが、ともかく平安道は農業のできる土地がとても少ないんです。それで、全羅道のようなところはいわゆる一万石の農民というのがいるのでしょうか?一万石。一年の生産量が一万石というのはかなりの金持ちです。東亜日報の金性洙氏だとか、こういう方々は皆全羅道の一萬石の農民の子孫ですよ。ところが平安道は千石といってもかなりの金持ちで、千石と言っても実際にはそんなになりません。せいぜい五百石とか、そんなふう。そこの土地がやせていて、良くないから、そういう農業は、少しでも山の中に入ると、もうそこは水田はなくて、畑だけで、キビとか玉蜀黍とかそんなものをたくさん植えて、(米は)あまりとれません。

福井：それでは、そのとき家族全員が……

李基文：そう、家族全員が越南してきました。それからキリスト教の信仰もあって、信者に対する迫害が多かったではないですか。もともと私たちの町というのは私たちのような一家親戚が集まっていて、数えてみたら21戸でした。そしてほとんど皆が親戚だった。同じ李氏で、ほとんど皆越南しました。それで、実際には、最近でも北に行って家族に会うとか、私たちはそういう必要もなくなったわけです。

福井：故郷が今どうなっているかというような消息は……

李基文：分かりません。あの、有名な文鮮明という人がいるじゃないですか。ええと、日本では何と言いますか?

福井：統一教……

李基文：統一教というのかな。その文鮮明が、定州郡出身なんだ。それであるとき文鮮明が北に行って金日成に会って膨大なお金を、2億ドルか、3億ドルをやって自分の故郷に統一教会を作ると。その教会というのが同じ郡で、私の故郷から約20里、30里にもならないのだけど。そこにそんな教会を建てるといって許可をえた、つまり金日成がOKした、それで今、建てている。そんな噂がありました。ともかく、そのあとはどうなったのか私は知らないけれど。

福井：それでも行ってみたいという気持ちは……

李基文：もちろん行ってみたいです。行ってみたいのですが、今のような、南北の家族が会うといっても故郷に帰るのではないのです。ただ、ソウルならソウルのホテルで会う、平壤なら平壤で会うというもので、故郷に行つて、祖先の墓参りをしたりとか、故郷の家に帰れるわけではないのです。

福井：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李基文：앞으로도 아니, 앞으로도 결국 지금 계획은 판문점이나 어디에 그런 만나는 장소를 정해 놓고 거기서 만나게 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지금 거기 가도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고향에 그냥, 옛날 우리집이라든가 그 거기가 어떻게 됐나 그런 거 좀 궁금해서 보고는 싶고 하지만은 뭐 그런 거, 어느 세월에, 내 생애에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앞으로 한 반 세기 뒤에나 어떻게 될지. 통일이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될지도 참, 지금 불안하고. 좌우간 자유, 응, 자유와 민주, 이 두 원칙을 가지고 통일이 돼야 될텐데, 그렇게 안 된다면은 참 큰 불행이 또 있겠죠.

## 8 朝鮮戰爭

福井：그리고 6·25 때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李基文：6·25, 처음 6·25 일어나서 6월 25일부터, 말하자면 서울이, 9·28이죠? 9월 28일에 유엔군이 다시 서울에 왔거든요. 국군하고 유엔군이. 그때 그 3개월 동안은 서울에 있었어요, 뭐, 피난 미처 못 갔어요. 내가 그때가 대학 2학년 막 올라갔을 때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해서, 지금도 좀 나쁘지만, 이, 축농증 수술을 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내 친척이 또 의사가 서울대학교 교수가 있어 가지고, 수술을 그때는 제2 병원이라고 해서 서울대학 지금 병원하고, 하나는 또 바로 저 중앙청 옆에 요새 저, 뭐니까, 무슨 박물관 있지? 지금도. 민속 박물관. 그 중앙청 옆에서 저기 삼청동으로 올라가는 길. 중앙청에, 중앙청에서, 그러니까 어느쪽이야? 그, 인사동 쪽의 길, 중앙청 옆에. 그로 올라가면 거기에, 저, 민속박물관이 있어요. 지금도. 고 민속박물관 바로 맞은편이 지금은 무슨 군 부대처럼 돼 있을 거야, 아마. 거기가 서울대학의 제2 병원이었는데, 거기서 축농증 수술을, 수술만 그냥, 했는데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국군 부상병들이 막 왔을 거 아니예요. 그 일 반환자는 전부 나가라 그래 가지고. 그래도 나는 금방 수술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더 있다가 나가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뭐, 벌써 이젠 또, 인민군 부상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서울이 가까워 인민군들이 들어오니까. 그래 가지고는 병원에 있다가는 다 죽는다 말이지, 그래서 그냥 나와 버렸어. 그러니까 나와 가지고 3개월 동안은, 나는 환자로서 살았어요. 말하자면. 뭐 축농증이니까 그렇게 뭐, 사실은 누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아무개네 집 아들은 병원에서 수술 받고 제대로 치료도 못 하고 퇴원

福井：これからもそういうやり方で……

李基文：これからというか, これからも結局,今の計画では板門店とかどこかで会う場所を決めておいて会わせる,何かそんな話があります。だから,私が今そこに行っても必ず会いたい人とか,そんな人はいないので,故郷に,ただ昔のわが家とか,そこがどうなったとか,そういうことが少し知りたくて見たいとは思うけれど,それがいつか,多分私の生きているうちはだめでしょう。これから半世紀ぐらい後ならどうなるだろうか。それから統一がどんな方向でどうなるかも今は不安だし。とにかく自由,そう,自由と民主,この2つの原則をもって統一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けど,そうできなければ大きな不幸があるでしょう。

福井：それから, 6・25(朝鮮戦争)の時はどのように過ごされましたか?

李基文：6・25が起きた初め, 6月25日から,言わば,ソウルが, 9・28だったかな? 9月28日に国連軍が再びソウルに戻ってきました。国軍と国連軍が。そのとき, その3か月間はソウルにいました。とても避難もできずに。私はその時大学2年に上がったばかりの時でした。ところで, 幼い時からそうで, 今も少し悪いんですが, 蓄膿症の手術をしました。ソウル大病院で。私の親戚にソウル大教授の医者がいて, 手術を, その時, 第2病院といって, 今のソウル大病院と, もう一つは中央庁の脇に, 今は何かの博物館がありますね, 今も. 民俗博物館。その中央庁の横から, 三清洞に登っていく道。中央庁から, どちら側になるかな? その, 中央庁の横の仁寺洞側の道。そこを登っていくと民俗博物館があります。今も。そのちょうど向かい側に, 今は, 何か軍の部隊のように思っています, 多分。そこがソウル大学の第2病院だったのだけれど, そこで蓄膿症の手術を, 手術だけしましたが, そこで戦争になりました。それで, 国軍の負傷兵たちが入ってくるじゃないですか。一般患者は皆出ていきなさいといって。でも私はたった今手術をしたばかりなので, 一日か二日そこにいてから出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が, 何と, もうすでに人民軍の負傷兵が入って来はじめました。ソウルは近いのもう人民軍が入ってきたのです。それで, 病院にいてはみんな死んでしまうということで, 病院を出てしまいました。そして出てから3か月の間は私は患者として過ごしました。言ってみれば。でも蓄膿症ですから, 本当は寝ていなければいけないわけでもないのに, 誰その家の息

해서 지금, 아주 다 죽게 됐다. 3개월 동안을 그렇게 환자 행세를 하고 살았어요. 그때는 더구나 뭐 음식도 뭐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우리 집이 쌀을 사다 많이 쌓아 놓고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돼서, 참 겨우 보리로 죽 섞고 뭐 이렇게 살았죠. 그래서 뭐 기운도 없었지만, 하여튼 내내 그냥 3개월 동안을 자리에 누워서, 왜냐하면 또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가끔 소위 그, 청년 단원들이 우리집에 막 습격을 해요, 들어와요. 그래 가지구, 갑자기 들어와서는 그냥, 내가 어떡하고 있나 이런 걸 살펴요. 그래서 환자라고 해서, 그렇지, 환자가 아니었으면 그냥 의용병으로 끌려갔겠죠. 그때 전부 청년들 다 끌어내다가 낙동강 전선으로 끌어내거나 뭐, 다 이랬으니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스물네 시간 그냥 누워 있을 수밖에. 그래서 환자로서 그냥 그렇게 누워 있었고, 해서 살았고.

그 다음에, 인제 9·28 되고 나서 1·4후퇴라고 해서 1월 4일날 다시 중공군이 내려와서 남쪽으로 내려갈 때에는 뭐 전 가족이 또 부산으로 다 같이 내려가서 거기서 인제 부산에서, 결국 뭐, 전시연합대학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여러 대학들이, 뭐, 전시니까, 어떻게 뭐, 각자 할 수도 없으니깐 그냥, 이렇게 모아서 대학도 하고, 나중에 인제 서울대학도, 따로 해서. 거기, 부산에서 졸업했죠, 난. 졸업식을 부산에서 했어요. 일본의 그 누군가? 아유. 후쿠오카에 있는 어떤 사람은 그 부산시대 전시연합 대학에 대한 걸 연구한다고 그러죠? 그 때의 그, 뭐 여러가지, 그, 와서, 지금 뭐, 자료도 그렇게 충분하질 않으니깐 우리나라의 그때 교수 한 분이라든가 연세 많은 분들 찾아다니면서 녹음도 하고 그런 분도 있었는데. 아이구 참, 그때는 참, 한심했죠. 그런 건 아마 일본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야.

福井: 아이구 이게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李基文: 하하하하하. 아, 이제 그만하죠, 뭘 자꾸 하셔.

福井: 잠깐만요. 70분짜리, 테이프 아니라 작은 디스크데요, 70분짜리면 넉넉한 줄 알았는데.

李基文: 음, 뭐, 70분 안 됐는데.

福井: 아직 안 됐어요?

李基文: 지금 우리가 시작한 지가 70분 안 됐어. 한 시간 안 됐는데.

子は病院で手術を受けて満足に治療も受けられず退院して、今にも死にそうになった、3か月の間はそうやって患者のふりをして過ごしました。そのときはまして食べ物などはあまりありませんでした。私の家は米をたくさん買いだめしておかなかったので、急にそうになって、やっとなで粥を作って食べて過ごしました。それで、元氣もありませんでしたが、とにかく3か月の間寢床に寝て過ごしました。なぜかという、また、そうせざるをえなかったのは、ときどき、いわゆる青年団員がわが家に襲撃して入ってきます。それで、急に入ってくると、私がどうしているのかを見るわけです。それで患者だといって、そう、患者でなければ義勇兵として引っ張っていったでしょう。そのとき青年たちを皆引っ張って行って洛東江の前線に引っ張って行ったり、皆そうでしたから。だからしかたなくただ24時間寝ているしか。それでそうやって患者として寝て過ごしました。

その次に、9・28となり、1・4後退といって1月4日に再び中共軍が下ってきて、南の方に避難するときには全家族が一緒に釜山に下って行って、結局、釜山で、戦時連合大学というの作っていくつもの大学が、戦時だからどうにかして、各自です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こうして集まって大学を作りました。あとでソウル大学も別に作りました。そこで、釜山で卒業しました、私は。卒業式を釜山でやりました。日本の誰だったか、福岡にいるある人が、その釜山時代の戦時連合大学について研究しているそうですね。そのときのいろいろなこと、資料も充分でないので、そのときの教授だとかお年寄りを訪ね歩いて録音したり、そういう方がいたんですが。そのときは本当にひどかった。そんなことは日本人には理解するのが難しいでしょう。

福井: おや, もう時間が過ぎてしまいました。

李基文: (笑) もうこれくらいにしましょう。

福井: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70分のディスク, テープではなくてディスクなんですけど, 70分なら十分だったのに。

李基文: まだ70分は経っていないけど。

福井: まだですか?

李基文, 始めてから, まだ70分経っていません。1時間も経っていません。



## 9 今後の研究計画について

福井：예, 39분, 그래도 거의, 아, 시간 조금 남았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요즘 하시는 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어사 개설, 신정판인가, 좀 간략하게 좀, 초보사용이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쓰셨잖아요.

李基文：요즘에 서문에다 내 좀 그렇게 썼죠.

福井：그리고 그 서문에 좀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쓰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李基文：그것이, 지금 뭐, 그렇죠 뭐, 시작은 됐다고 할 수 있어요. 마침 그때가? 신수판이라는 걸 내기 조금 전인가? 그때 무렵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에서 영어로, 역시, 번역을 내겠다, 이렇게 연락이, 저,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책의 영역은, 나는 만족할 수가 없고, 새 책을 써서 영역을 하는 건 좋은데, 영역을 할래도 새로 책을 써서 영역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지금 뭐 일본어 번역도 있고 독일어 번역도 있지만은, 번역을 가지고는 그런 일본 독자나 독일 독자 더구나 영국이나 미국의 독자에게 만족을 주기 어렵다, 번역으로써는. 그러니까 영어로 아주 새로 쓰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말로도 물론 조금 큰 책을 하나 쓰려는 계획을 내가 하고 있지만은, 그거를 토대로 해서, 미국이나 영국 독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 쓰는, 그런 방향으로 하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도, 그 이 뭐, 미국이나 영국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게 많잖아요. 뭐 한자의 훈이다, 새김이다, 해도 도대체 그게 뭔지, 그 사람들은 그런 거, 뭐, 모를 게 많죠. 한글에 관한 것도 그렇고. 하여튼 난 그렇게 새로 하나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여러번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결론이, 지금 처음부터 메릴랜드 대학의 램지교수가 번역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그쪽에서 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번역을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램지 교수가, 그런 미국 영국의 독자를 생각해서 영어로 아주 고쳐 쓰는, 이런 방향으로 하자 말이야. 그래서 번역자가 아니라 공저자로 하는 게 좋겠다. 마지막에 내가 그렇게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오케이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침 램지교수가 이제 7월달부터 1년간 안식년 휴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마침 잘 됐다 말이지. 그래서 이걸 했는데, 또 다행히도 여기 저, 국제,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도 조금 도와주고, 미국의 그 저, 재단에서도 연구비를 또 줬어요. 그래서 일년 동안 참, 잘 할 수 있게 돼서, 지금 그 이제, 영역하고 우리말 하는 거 이것은 이제 거의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됐어요. 나도 우리말 원고를 이제, 써서 주면은, 램지가 그걸 참고로 하되, 고

福井：はい, 39分ですね, ほとんど, あ, 少し時間が余っています. それでは次の質問は, 最近なさっている仕事についての質問です. 『国語史概説』の新訂版, 少し簡略に, 初心者用というか, そういう風にかかれましてよね.

李基文：最近, 序文に少しそのように書きました.

福井：それからその序文にもう少し詳細なものはあとで書くとおっしゃいましたが, それは今どうなっていますか.

李基文：それは, 今, そうですね, 始めたと言えると思います. ちょうどそのときだったか, 新修版というのを出す少し前だったか, その頃イギリスのケンブリッジ大学出版部から英語で, やはり翻訳を出すという連絡, 手紙が来ました.それで私は今ある本の英訳は自分は満足できないので, 新しい本を書いて英訳をするほうがよくて, 英訳をするとしても新しい本を書いて英訳をしなければと思っていて, 今, 日本語翻訳があり, ドイツ語翻訳もありますが, 翻訳では, 日本の読者やドイツの読者, さらにイギリスやアメリカの読者を満足させるのは難しいと思います. 翻訳では. それで, 英語でまったく新しい本を書くことが私は望ましいと考える. それで韓国語でももちろん少し大きな本も一冊書くという計画をしていますが, それを土台にして, アメリカやイギリスの読者が理解しやすく, 新しく書く, そのような方向にしよう. つまり, 韓国人なら常識で知っていることも, アメリカ人やイギリス人はまったく知らないということもたくさんあるでしょう. 例えば漢字の訓とか釈とか言っても, それが一体何なのか, 分からないことが多いでしょう. ハングルに関することもそうだし. とにかく私はそうやって新しいものを1つ書く方がいい, こうやって何度も話をしているうちに, 結局, 結論は, メリーランド大学のラムジー教授が最初から翻訳をするように向こうから提案してきたのです. それで私は, 翻訳をするのではなく, ラムジー教授が, アメリカ, イギリスの読者のため初めから英語で書き直すような方向にしようということです. それで翻訳者ではなく, 共著者とするほうがいい. 最後に私はそのように提案しました. そして先方も OK しました. そして今ちょうどラムジー教授が7月から1年間サバティカルの休暇なので, ちょうどよかったということ. それで, そうすることにしたのだけど, 幸い, こちらの 코리아 ファウンデーションでも少し支援をしてくれ, アメリカの財団からも研究費をくれました. それで1年間, うまくできるようになって, 今, 英訳と韓国語版を作

대로 번역은 아니고, 참,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 새로 쓰는 거지. 그러면 상당히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내 건강이 요새 그래서 그랬는데, 램지 교수의 희망은, 내년 한 2, 3월 경에 그, 자기 있는 데로 와서 한, 한 학기 동안 거기서 좀 묵으면서 같이, 마지막 마무리를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벌써 집 예약까지 다 해 놨다고 그래. 아이구 나는 지금 이, 참, 내 건강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福井： 그러면 결론으로서는 한국어판하고 영어판이 동시에……

李基文：글쎄, 동시에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아마 영어판의 영향을 한국어판도 좀 받을 거고 한국어판의 영향을 중국어판도 받을, 영어판도 받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책은 아마 그렇게 될 건데. 내가 사실은 이제 앞으로 몇 년 공부 더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만 칠십인데, 말하자면, 한 오년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난 이렇게 희망하는데. 내 건강이 갑자기, 내가 아까 이야기한 뻘인데, 사실은 뭐, 월남해, 서울에 와 가지고, 건강이 아주 나빠졌어요. 역시 농촌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자라던 사람이 서울에 와서, 갑자기 그냥, 공부만 하고 뭐, 이, 서울이,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애. 건강이 극도로 나빠져 가지고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2학기 마지막 학기는 거의 학교를 못 갔어요. 그리고 지금 광릉이라고 있지? 내가 그 수필도 썼는데. 내 그, 저, 귀향에 수필도 썼어. 광릉, 빛 광자 광릉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왜, 임업시험장으로 유명한 데가 있어, 광릉이라고. 서울 근처에서는 제일 수풀이 제일 좋은 데지. 거기 세조대왕릉이 있어요, 세조. 광릉, 그래서 광릉이야, 세조대왕릉이야 거기가. 광릉에 마침 또 이북의 고향 선배가 한 분이, 그분도 몸이 아파 가지고, 그, 광릉에 봉선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그 절 앞에 학교가 중학교가 하나 있어,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의 선생을 하면서 거기 가서 아주 머리가 좋은 분이었는데, 자기가 연구해서 한약을 만들어서 자기 몸을 치료하면서 산분이 한 분 있었어. 그래서 내가 몸이 그렇게 허약하다니까, 아, 너도 이리 오라, 자기가 봐 주마, 약도 좀 만들어 주고 이제 그러마. 그래서 나도 거기 가서 몇 달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학기는 거의 학교도 잘 못 다니고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 입학 시험도 한 일년 뒤에 할까, 건강도 그런데, 했는데 또 여러 분들이 아, 뭐, 대학에 입학은 해 놓고 보는 게

를のをほとんど同時に進めることになりました。私が韓国語で原稿を書いてラムジーがそれを参考にはするが, そのままの翻訳ではなくて, アメリカ人の立場から新たに書くということです。そうすればとてもいい本ができるだろうと, こう考えて今そのように進めているため, 私の健康が最近あまりよくないので, ラムジー教授の希望は, 来年2月か3月頃に, 自分のいるところに来て約1学期の間そこに泊まりながら一緒に最後の仕上げをしようというそういう考えで, もう家の予約までしておいたということです。でも, 私は今, 健康がどうなのかよく分かりません。

福井玲：それでは結論としては, 韓国語版と英語版を同時に……

李基文：そう, 今同時にそのように進めていて, 多分英語版の影響を韓国語版も受けることになり, 韓国語版の影響を英語版も受けることになりそう. こういうふうによって, 多分そうなるでしょう. 本当は私はあと何年間勉強ができるでしょうか. 今, 満70歳ですが, あと5年ぐらい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希望しているのですが. 私の健康が急に, さっきは話を抜かしたのだけど, 本当は越南してソウルに来てから健康がすごく悪くなりました. やはり農村で自由に育った人間がソウルに来て急に勉強ばかりすることになり, またソウルが, こんなになって, そのせいみたい. 健康がひどく悪くなって, 実は高等学校3年のとき2学期, 最後の学期はほとんど学校に行けませんでした. そして今, 光陵というところがあるでしょう? 私が随筆も書いたのだけど. 『帰郷』に随筆を書きました. 光陵, 光と陵の光陵です. 韓国の林業試験場で有名なところがあって, 光陵という. ソウルの近郊では一番林のいい場所です. そこに世祖大王陵あるんですよ, 世祖. だから, 光陵, 世祖大王陵がそこです. その光陵にうまいぐあいに北の故郷の先輩が, その方も体が悪かったんですが, その光陵に奉先寺という寺があるんです. その寺の前に学校が, 中学校が1つあって, 新しく新設されました. そして, その中学校の先生をしながらそこに行って, とても頭のいい方だったんですが, 自分で研究して韓薬を作り, 自分の体を治療しながら暮らしていた方がいました. それで, 私が体がそんなに虚弱だということで, お前もこっちに來い, 自分が見てやろう. 薬も作ってやろう. それで私もそこに行つて何か月かいました. それで実は高校3年の最後の学期はほとんど学校にも行けずに卒業しました. それで大学の入学試験も一年ぐらいあとにしようか, 健康もよくないので, と思っ

더 낮지 않으나 그래서 입학은 하고, 한데 뭐, 그런대로 다시 광릉엔 안 가고 서울에 있으면서 그냥 학교는 다녔어요. 그렇지만 50년대 내내, 아주 건강이 나빴어요. 해서 대학, 대학원 뭐, 하고 이런 때 아주 건강이 나빠서 사실은 미국에 그 59, 60년에 내가 하버드에 갔죠? 그때도 내가 폐가 뭐 그때도 나쁘다고 그러고 해서, 미국에 통과가 될까 말이지, 그땐 미국 갈 땐 한국 사람은 언제나 폐 사진을 들고 들어갔거든. 그래서,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어떻게 해 가지고 통과가 됐어. 하여튼 그렇게 건강이 나빴는데, 그 뒤로 이제 60년대부터 이상하게 미국 다녀온 뒤로부터는, 건강이 좀 괜찮아서 쪽 이제 왔는데, 정년 퇴직한 뒤로 다시 건강이 좀 나빠지네요. 그래서 역시 그, 어렸을 때 그랬던, 아주 어렸을 때, 또 건강이 아주 나쁘다고 그래.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지금도 여기도 수술한 자국인데, 이거는 두 세살 때 수술한, 뭐 머리가 독만 했다고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그러시는데, 내 머리가, 독 있죠, 독 만큼 커졌대. 그래서 다 죽었다고, 아랫목에 다 죽었다고 이불을 씌워 놔는데 내가 살아서 기어나왔다는 거야. 그런데 그 뒤에 여러 사람들이, 우리 할아버지 명을 내가 타고 나서, 참, 오래 살 거다. 이런 말을 우리 집안의 어른들이 많이 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역시 오산학교 일회 졸업생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참 머리도 좋고 마음도 좋은 분이었는데 그 오산학교를 창설한 그분이 결국 우리 할아버지의 그러니깐 뭐야 작은 할아버지지.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동생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 독립운동하느라고 해서 내내 감옥에만 가 있고 뭐 이랬잖아요. 3·1운동에도 우리나라 기독교 대표거든. 이승훈이라는 분이. 아까 이승훈 썼죠? 3·1운동 33인이 서명했잖아요. 3·1운동 독립선언서에. 그중에 기독교 대표가 이승훈이야. 그때도 감옥에 몇 년 가 있었고 그 뒤에도 좌우간 노상 감옥에 드나들고 그래서. 그 자기 작은 할아버지 감옥 시중 들고, 또 없는 동안에 학교 일, 오산학교 학교 일 이걸 다 챙겨야 되고, 뭐 이래서 너무 피로했고, 과로를 했고, 또 더구나 자기 자신도 무슨 사건에 얽혀서 감옥에 가서 몇 달 동안 아파, 그때 아주 상당히 모진 형벌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나와서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의 명을 타고 나서 내가 오래 살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 근데 그 얼굴이 우리 아버지하고도 내가 비슷하지만 할아버지 사진하고는 꼭 같다고 그래. 나는 별로 그렇게 같은 것 같지 않은데,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할아버지 내가 꼭 닮았다고, 그래서 나를 특별히 귀여워하고 그랬는데. 그래, 좌우간

ていたが、何人かが、大学に入学しておいてからのほうがいいのではないかと、入学して、そのあとはなんとか光陵に行かずにソウルにいながら学校に通いました。しかし、50年代はずっと健康がとてもよくなかったのです。それで、大学、大学院のときも健康がよくなくて、実はアメリカに、59, 60年にハーバードへ行ったのですが、その時も肺がよくないといって、アメリカ行きが通るかどうか、そのときはアメリカに行くときは韓国人はいつも肺の写真を持っていったのです。それで(肺の検査を)したのですが、幸いにかんどうに通りました。とにかく、そんなに健康が悪かったのですが、その後、60年代から不思議なことにアメリカに行ってきたからは健康が少し良くなって、ずっとそのままきているのですが、停年退職してからまた健康が少し悪くなってきました。ところで、幼いとき、とても幼いときにも健康がとても良くなかったそうなんです。とても幼いときに。それで今も、ここは手術した痕なんだけど、これは2歳の時に手術した痕で、なんでも頭が禿みたいだったと母がいつも言っていて、頭が、禿ぐらしいに大きくなって(膨らんで)いたと。それで、いよいよ死ぬと思って布団をかけて部屋の暖かい所に寝かせておいたら、私が生きていて這い出してきたというんだ。それでその後、何人かが、私の祖父の命を受け継いで、長生きするだろう。こういう話を我が家の大人たちがよくしていました。私の祖父は早く亡くなったのです。祖父はやはり五山学校の第一回の卒業生なんです、私の祖父が。本当に頭が良くて気立てのいい方だったんですが、五山学校を設立した方が、つまり私の祖父の祖父の弟だったんです。ところでその人が何か独立運動をしていると言って、ずっと監獄に行ったりしていました。3・1運動でも韓国のキリスト教代表でした。李昇薫という方が。さっき、李昇薫の名前は書きましたね。3・1運動は33人が署名しましたね。3・1運動の独立宣言書に。その中のキリスト教界代表が李昇薫なんだ。そのときも監獄に何年か行って、そのあともずっと監獄に出たり入ったりして。(祖父は)その自分の祖父の弟の監獄での世話をし、また、(李昇薫が)いない間に五山学校の校務をすべてやらなければならず、そうしてあまりに疲れ、過労になって、そのうえ自分自身も何かの事件にまきこまれて監獄に行き、何か月か、おそらくそのときに酷い刑罰を受けたみたいでした。そうして、そこから出てきて、結局、死にました。そうして祖父は早く亡くなったのですが、その祖父の命を受け継いで私は長

앞으로 한 5, 6년만 내가 더 책상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어원 사전 비슷한 걸 하나 만드는 거야. 국어 어휘의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내가 지금까지도 많이 썼지만은, 하여튼 그런, 좀, 체계화해서 사전의 형식으로 해서 하나 간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할 만한 내가 시간과 참, 그게 있을지, 좀 걱정이 돼요. 허허허허.

福井: 어원사전 같은 거 만드신다면 혹시 일본어에 대해서도 일본학자의 협력도……

李基文: 그렇죠. 참, 일본에 관한 것도 뭐, 언제나 관심 가지고 내 옆에서 그, 국어사……, 일본 국어 대사전 시대별 국어대사전 조다이웬 상대편 하고 이와나미 고어사전이니 뭐 이런 거, 소학관에서 낸 그 일본어……

福井: 글썬요.

李基文: 고걸 하나.

福井: 그거 한번 좀 보내 드릴까요?

李基文: 글썬요, 한번 구해 보세요. 그게 요새, 지금도 물론 나오고 있겠죠. 아유, 일본 책은 뭐 우리 나랏돈으로 환산하면 너무 비싸서. 참. 그렇긴 하지만은 필요한 거는 사야죠 뭐. 상당히 어원이 많다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그리구 이, 겐큐산가 어디서 낸 영어 어원 사전이 일본말로 나왔다고 그러데. 영어 어원 사전. 근데 여기 영어학 하는 분이 한번 그래. 아주 잘됐다고. 겐큐산가 어디선가 낸.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영어 어원 사전이야 뭐 영국에서 나온 것들 보면 되지만 그래도, 고건 뭐, 펜잖아. 참, 일본말에 대해서 좀 더.

註)

램지 교수: Samuel Robert Ramsey (1941-). 아메리카의言語學者. 韓國語, 日本語など東アジア의 研究者で 메리랜드大學教授. 韓國語의 アクセント 研究では,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s: A Descriptive and Historical Study* (1978, 서울: 塔出版社) などで有名である.

この部分は, 李基文先生の『新修版 国語史概説』の序文に書かれている先生の将来計画について質問したものである. ここで述べられている英語版は, その後, 先生と 메리랜드大學の 램지先生の共著として 케임브리지大學出版會から刊行されることとなった (Lee, Ki-Moon and S. Robert Ramsey (2011)).

生きするだろう. こんな話があったわけですが, 私は顔は父とも似ていますが, 祖父の写真をみると瓜二つだということです. 私はそんなに似ているとも思わないのだけど, 祖母は私が祖父にそっくりだと, それで特別にかわいがっていました.それで, ともかく, このさき5, 6年ぐらい机で勉強できるなら, やりたいことの一つは語源辞典のようなものを作ることです. 国語語彙のあらゆることを, すべてやることはできなくて, 私はこれまでもたくさん書いてきましたが, とにかくそのような体系化して辞典の形式で一つ刊行しなければという考えは持っています. しかし, それができるだけの時間と余力があるかどうか, 少し心配になります. (笑)

福井: 語源辞典のようなものをお作りになるならもしかして日本語についても日本人学者の協力も……

李基文: そうですね. 日本に関するものもいつも関心を持っていて, 私のかたわらに国語辞典……, 日本の国語大辞典, 時代別国語大辞典上代篇と岩波の古語辞典などのようなもの, それから小学館から出た日本語 (国語大辞典) ……

福井: そうですね.

李基文: それを1つ.

福井: それをお送りしましょうか?

李基文: そうですね. 求めてください. それは最近では, 今でももちろん出ているでしょう. でも日本の本は高くて, でも必要なものは買わなくては. 語源がたくさん載っているという話を聞きました. それから, 研究社かどこかで出した英語語源辞典が日本語で出たそうだけど. 英語語源辞典. こちらの英語学をやっている方がそう言っていました. とてもできがいいと. 研究社かどこかで出したもの. 詳しい事は分からないのだけど. 英語語源辞典は, 英国で出たものを見ればいいわけですが, でも, それはいいって. それから, 日本語についてももう少し.

## 10 河野六郎先生の「濊」に関する所説について

福井：아, 그리고 제가 뭐, 조금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선생님도 조선 문화, 동경대학에 계셨을 때 그러셨는데요. 고노 선생님이 일본어, 일본 사람을 옛날에 한국에서 예라고 했다고, 거거하고 그, 민족 그, 옛날 중국 삼국진이 뭐 거기 나오는 예에 관련이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이기문 선생님께서 그, 반론을 하셨는데, 뭐가 거기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이기문 선생님이 하시는, 이기문 선생님 의견도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그냥 버리는 것도 좀 아깝지 않을까.

李基文：응응, 글썽 아까워요. 그렇게 예라는 게 말이야. 근데 향가에 여러라고 읽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여러, 여러가. 근데 또 그 비슷한 예들이, 누리가 누가 되고 말이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 아까운데.

福井：예라는 한자음에 대해서, 그 한자음이 거성인데요, 거성인 경우에 옛날의 중국어의 운미가 상고음에서는 뭐가 이런 식으로 유성으로 다가 있었다는 설도 있을텐데요, 그렇다면 뭐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李基文：안 찾아봤네. 가능성도 있네. 다가 있었다고 칼그렌이 그랬나?

福井：예.

李基文：칼그렌이 떠라고 재고한 것 중에 나중에 이방계 같은 사람은 알로 재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福井：예.

李基文：이방계 거는 저, 전반적인 건 볼 수 없는데. 하여튼 그거 그 예자 한번 찾아 봐야겠다. 그건 또 안 찾아 봤네. 하하하하. 그래요, 그러게. 그건 하여튼 상당히 재미있는 가설 중에 하나는 틀림 없는데 다만 고노 선생이, 그런 예 말이 고구려 지명표기에, 거기에 반영되었으리라고 하는 건 나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지명 표기가 그냥 표기가 될라면 그것은 고구려라는 나라에서 표기법이 성립된다는 거는, 누구나, 표기법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요새 식으로 말하면 뭐, 훈독표기인데, 그게 성립이 된다는 거는, 결국, 고구려라는 나라에서 그런 새김이, 훈이, 일반화돼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성립이 돼 있어야 한다는 말이야. 그게 만약 예 말이 고구려 좌우간 그때 고구려 수도의 말 이런 거와 달랐다면은 그, 예 말이 새김이 될 가능성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역시 고구려 지명에 나타나는 그것은, 요새 우리로서는 그냥 고구려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제 고구려에서 그런 훈독이라는 게 생겼다 이렇게 보지 않고는 그 표기법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이북 사람들은, 이북의

福井：それから, これは私が個人的に関心があるのですが, 先生が東京大学の朝鮮文化(研究室)にいらっしゃったときに, おっしゃっていたことですが, 河野先生が韓国では昔日本人を「예」と言っていたことと, 昔の中国の三国志に出てくる「濊」と何か関連があるということについて, 李基文先生はそれについて反論をされました。私もそれについて関心があって, 先生の意見も理解できますが, 捨ててしまうのも惜しいという気がします。

李基文：そうそう, 惜しいです。ところで「예」というのは, 郷歌では「여리」と読むことになっていますね。여리。ところでそれと似た例があって, 누리가누리になるなど。こういうのがあって, 惜しいと思うのです。

福井：「濊(예)」という漢字音について, その漢字音は去声なんです, 去声の場合には昔の中国語の韻尾が上古音で有声音 -d があったという説もあるはずですが, もうしそうだとしたら何か関連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気もしますが……

李基文：調べていません。可能性もありますね。カールグレンがそう言ってる?

福井：はい。

李基文：カールグレンが -d と再構したものの中には, 後に李方桂のような人が -r と再構したものもあります。

福井玲：はい。

李基文：李方桂のものは, 全般的なものを見ることができなくて。ともかくその「濊」の字は一度見てみないといけないね。それもまだ調べていません。(笑) そうだね。それはとても面白い仮説の一つ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が, ただし, 河野先生が, そのような濊語が高句麗の地名表記に反映していただろうとするには少し無理があると思うのは, 結局, 地名表記が, 表記として成り立つためには高句麗と言う国で表記法が成立したということは, 表記法というのが最近の言い方で言えば一種の訓読表記であって, それが成立するというのは, 結局, 高句麗という国でそのような「釈」が, 訓が一般化していなければならぬでしょう。成立していなければ, それがもし濊語が高句麗で, その頃の高句麗の首都の言葉とは違っていただければ, 濊語が釈になる可能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それで, やはり高句麗の地名に現れるものは, 今の我々としてはただ高句麗語と考えて, それが高句麗でそのような訓読というものをしていたと, このように考えないとその表記法自体を理

김수경이 같은 사람, 그 뭐, 세 나라 시기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삼국사기 권 37에 표기된 거 하고 35나 이런 데 표기된 거를 막 뒤섞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 그거는 안 되거든요. 고 37에 있는 게 고구려 자체에서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썼다, 두 가지로 쓴 이 표기들이 나오는데 벌써 신라 통일시대에 경덕왕 때 개명은 그건 물론 옛날의 그것을 참고를 했지만 완전히 고쳐서 했기 때문에 그건 엄격한 의미에서는 음독표기하고 훈독표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난,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혼동해서 하는 건, 방법론적으로 벌써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예 말이 고구려 말하고 그렇게 다른 건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일본말에 고구려적인 요소가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사실 고구려 자료가 적으니까 지금 뭐라고 말은 할 수가 없지만, 내가 보기엔, 느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적은 자료, 고구려 자료가 남아 있는데, 그것이 일본말에서 그렇게 신중하게 말이지, 그렇게 유사성을 보여준다는 건, 이건 보통일은 아니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뭐, 학자들이 지금 학문적으로 하려면, 뭐, 그런 뭐라고, 느낌만 가지고 얘기할 순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 가령 뭐, 영어나 독일어 중에 어느 하나가 없어졌다고 할 때에, 그 하나의 적은 자료가 독일어하고 보여주는 그 유사성이 어느 정도나 어떻게 될지.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나는 하여튼, 나는 아직 왜 그런 지를 모르겠어요. 일본어하고 고구려어의 그런 유사성이 왜 그런지. 그러면 예가, 예의 한 흐름이 결국 일본 열도까지 그렇게 가게 됐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난 그 예 말이 고구려 말하고 뭐, 그렇게 달랐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역시 그, 같은, 가까운 친족어였으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예, 그 예를 고놈의 고 여리가 향가 표기만 없었다면은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고노 선생의 이야기를 조금만 수정해서, 사실, 지명표기를 곧 예의 언어의 표기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말이지. 그렇게 뭐 가까우니까. 그렇게 해서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여리라는 게, 사실은 여리하고 예 이런 두 개, 고걸 뭐 지금 자료가 없어서 여리와 예가, 예가 언제 나타났는지 이런 것도 지금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예란 발음이, 일본에는 왜 그런, 또 예에 해당하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일본에는. 와, 와니 뭐 이런데 그, 예하고는 다르단 말 이야. 그런 와는 필까? 배고프겠어 난, 아이고 한 시간. 가서 먹으면서 이야기합니다.

解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北の人たち、北の金壽卿のような人は『三国時期の……』, そういふのを見ると、三国史記卷37に表記されているものと35卷などに表記されたものを混ぜこぜにして話しています。それではだめなのです。37卷に出てくるものは高句麗自体で、このようにも書くし、このようにも書く、2種類で表記した表記が出てくるわけですが、すでに統一新羅時代の景德王のときに改名したものは、もちろん昔のものを参考にしたでしょうが、完全に直して改名したので、厳密な意味では音読表記と訓読表記ではないのです。だから私はそういう面ではそうやって混同してやるのはそもそも方法論的に間違っていると考えるのです。ところで、そうはいっても、濊語が高句麗とそれほど異なっていたとはなかったと考えています。結局、日本語に高句麗語的な要素がそんなに含まれているとすれば、実は高句麗の資料が少なくてなんとも言えないけれども、私の考えでは、感じとしては、どうしてそんなに資料が少ないのに、それが日本語とそんなに不思議なくらい類似性を見せるのかということは普通のことではありません。ところでそれを今、研究者が学問的にやろうとすれば、感覚だけで話す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が、本当は重大なことなのです。今、例えば、英語やドイツ語のうちで、どちらかがなくなったとすると、その一つのわずかな資料がドイツ語との間で見る類似性がどの程度になるでしょうか。そういうことを考えると、私はとにかくなぜそうなっているのかよく分かりません。日本語と高句麗語の類似性がどうしてそうなのか。それならば、濊が、濊のある一派が主に日本列島にまでたどりつくことになったとしか考えられないのですが。私はその濊語が高句麗語とそれほど違っていたとは考えないのです。やはり、同じ、近い親族語だったので、そうなのではないか。濊について、例の郷歌の「여리」という表記さえなかったらそう考えることができるのに。それで河野先生の話をして少しだけ修正して、地名表記を濊の言語の表記とだけ考える必要がないと考えたとしても、もともとそれだけ近いのだから。そうやって同じだと言えるのですが、「여리」というのは、実は「여리」と「예」という2つ、それを、今は資料がなくて「여리」と「예」が、いつ現れたのか、そういうこともよく分からないでしょう。本当は。「예」という発音について、日本語には「예」に該当する単語がありませんか?日本語に。「倭」<sup>わ</sup>というのには、「예」とは(発音が)違うわけです。その「倭」<sup>わ</sup>は何でしょうか?お腹がすいてきました。

もう1時間ですね。外で食べながら話をしましょう。

註)

칼그렌: Bernhard Karlgren (1889-1978)。スウェーデンの中国学者、言語学者、文献学者。中国語の中古音を再構した *Études sur la phonologie chinoise* (1915-1926) などでも有名。

이방계: 李方桂 (1902-1987)。中国の言語学者。中国語の他、タイ・カダイ諸語など多くの言語の研究を行った。アメリカの大学で学位を取得したほか、アメリカ各地の大学で教鞭をとり、アメリカで亡くなっている。

김수경: 金壽卿。江原道通川出身で、京城帝国大学で学び後に越北した言語学者。彼については、板垣竜太 (2021) に詳しく紹介されている。

この部分は河野六郎 (1993) の説に対する李基文先生の意見を述べられている部分である。李基文先生は高句麗語と日本語の近い関係を認める立場であるが、河野先生は高句麗地名に見られるものは高句麗語ではなく濊語であるとしている。なお、これについては近年、伊藤英人氏が河野説をさらに発展させる研究を行っている (伊藤英人 (2019) など)。

## あとがき

以上は2000年に筆者の一人 (福井) が行った李基文先生に対するインタビューを、もう一人の筆者 (南潤珍) が録音されたものから書き起こして、それに福井が翻訳と注釈を付けたものである。先生が話された内容は多岐にわたるが、その中でも先生の父李贊甲に関する話が最も多い。先生の父は、学歴や社会的地位という点では著名な人物では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が、民族が生き残るためには歴史と言葉が重要であると常々考えていて、それが歴史学者李基白、韓国語学者李基文という二人の息子に受け継がれているという点で、韓国史の中で大きな働きをしたといえる。

その李基文先生も2020年に亡くなられてしまった。李基文先生は、過去のつらい思い出を語る時にも、時にはユーモラスに感じられるくらい、淡々と独特の語り口でお話されるのが印象的である。また、後半で語られているように、当時いくつかの研究計画をお持ちで、そのうちで実現されたものもあれば、実現できなかったものもおりである。筆者も、できることがあればご協力申し上げたいと思っていたが、それも叶わなかったことを今更ながら残念に思う。

## 参考文献

板垣竜太 (2021) 『北に渡った言語学者金壽卿1918-2000』京都: 人文書院。

伊藤英人 (2019) 「高句麗地名」中の倭語と濊語. 『専修人文論集』105: 365-421. 専修大学出版局。

河野六郎編 (1993) 『三国志に記された東アジアの言語および民族に関する基礎的研究』平成2・3・4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 一般研究 (B) 研究成果報告書. 東洋文庫。

福井玲 (2001) 「李基文」『月刊言語別冊 言語の20世紀101人』第30巻3号. 東京: 大修館書店。

李基文 (1996) 『帰郷』私家版。

李基文 (1998) 『新訂版 国語史概説』ソウル: 太学社。

백승중 (2002) 『그 나라의 역사와 말』ソウル: 궁리출판。

Lee, Ki-Moon and S. Robert Ramsey (2011) *A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n Interview to Professor Lee Ki-Moon**

FUKUI Rei and NAM Yunjin

This paper presents the transcription of an interview to professor Lee Ki-Moon (1930-2020) with a Japanese translation and a few notes. The interview was arranged and recorded by one of the authors, Fukui Rei, in August, 2000. Professor Lee Ki-Moon is famous for his studies in historical linguistics of the Korean language. He also served as a visiting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Tokyo in 1993-1994. His narrative consists of a wide range of topics including the background of his family, life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and Korean war, life of his father, and his plans for future studie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stories in this narrative is the life of his father, who alway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history and language in order for the Korean people to survive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